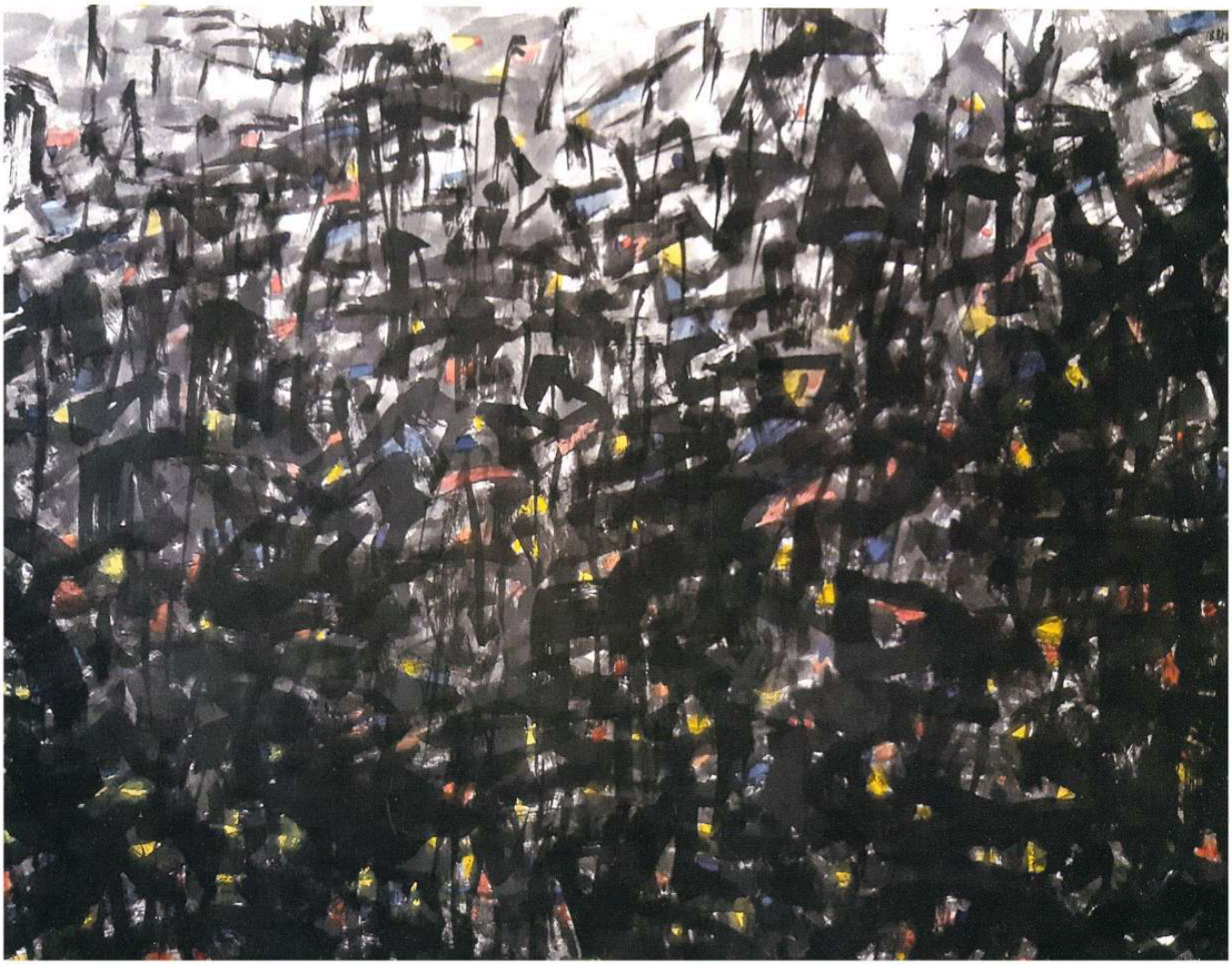
2018년 통권 제25호 전북회화회발행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5. 2018.
http://cafe.daum.net/artjb

전북회화

Chonbuk Painting



가을 잎

이 승 훈

넌 무거워졌다
자꾸 말을 줄이고 있다
허공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
너도 가벼워지기를
걷고 또 걸어서 야위어 가면
그 고질 당뇨에서 벗어나지
내 욕망 한 가닥씩 걷어내면
영혼은 깃털로 내려앉는다
흙으로 가는 잎
내려앉는 슬픔보다 기쁨이 영롱하여라
낙엽이 거닐다보니
아, 낙엽이 나를 깨운다.





이 승 훈

- 지평선문학 동인
- 시집, 〈빈들의 소곡〉신아출판사 출판, 〈달개비 꽃 하늘〉 대한북스 출판
- 미술문화컬럼집, 〈감성 그 시간 속으로〉 맵시터 출판

표지작가안내



墨想 / 150×80cm / 수묵담채, 2018

이 환 배 (Lee, Whan-bae)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
-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 감성표출전(인테코화랑/서울)
- 동악 71~94(문형궁미술관/서울)
-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 前)예원예술대, 전통문화고, 전주예술고 출강
- 現)그린섬 총원장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111 108-1502
- 전화 : 010-3673-1562, 063)288-4466

전북 회화

전북회화

이천십팔년 12월

제25호

전북회화회

CHONBUK PAINTING

● 전북 회화회는 한국화를 전공하고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의욕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작가 개개인의 작가적 역량을 넓히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작품활동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으며, 전북 회화회지 발간을 통해 지역 예술활동의 질을 높히고 한국화에 대한 저변확대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

● 전.북.회.화.회.발.자.취



1990. 3. 13 전북회화회 창립
1990. 5. 31~6. 13 중앙시장 사람들展-얼화랑-주제전
1991. 1. 4~5 스케치여행:해남 대흥사
1991. 3. 9~1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1. 6. 8~20 전북의 산하展-우진문화공간-주제전
1991. 6. 15 전북의 산하展에 따른 "작가와의 대화" -전시장
1991. 8. 31 하계 세미나-지리산 정아콘도
주제: "미술의 구조적 이해" 에 대하여-F.B.Feildman저, 김춘일 역(사회:이철량)
1992. 6. 4~10 전북회화회展-대성화랑-정기전
1992. 12. 1~7 교동의 표정展-얼화랑-주제전
1993. 5. 14~20 전북회화회展-우진문화공간-정기전
1993. 5. 16 정기전에 대한 "작가와의 대화" -전시장
1993. 9. 17~26 전북회화회展-정갤러리-주제전
1993. 제1호 전북회화지 발행(창간호)
1994. 2. 25~26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환영MT(회문산 자연휴양림)
1994. 6. 15~21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4. 제2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5. 1. 정기모임 신입회원 환영식-변산해수욕장
1995. 3. 17~23 전북회화회 정기전 및 세미나(전북예술회관)
1995. 3. 18 세미나주제: "우리다운" 미술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강사-박용숙(미술평론가, 동덕여대 교수)
1995. 11. 후반기 전북회화회 테마展-광복50주년(기린예원)
1995. 12. 22 파출소그림 걸어주기(전주시내 12개파출소 작품기증) 정기총회
1995. 제3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 25 정기모임
1996. 6. 28~7. 4 전북회화회展-전북예술회관-정기전
1996. 12. 6~13 전북회화 테마展-기린갤러리-전북문화 유적 기행전
1996. 제4호 전북회화지 발행)
1996. 12. 12 정기총회
1997. 2. 20 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1997. 4. 19 신입회원 환영회 및 세미나
주제:한국화의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청강사:이철량 교수님
1997. 6. 26 정기 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1997. 8. 28 전북 회화지 발간 편집 1차 모임
1997. 10. 28 전북 회화회展, 제5호 전북 회화지 발행
1997. 12. 정기총회 및 결산
1998. 2. 동계야외 스케치-덕유산, 운주
1998. 4. 정기모임-하계 도예 캠프 계획 수립
테마를 위한 마이산 기행-기간:8.8
안내:진안 문화원장 1998. 10. 정기모임 1998. 11. 18
전북 회화회전 및 제6호 전북 회화지 발간
1999. 1. 14~1. 16 도예캠프(백제예술대학 도예과)
1999. 1. 14 청 세미나(주제:21C 한국화의 전망 및 기대와 역할
청강사:이철량 교수
1999. 1. 15 도예 청특강
(주제 "도예의 재료학에 대하여" 청강사:심재천 교수
1999. 3. 19~3. 31 백제대학 기획 대전
-도예의 솜결을 찾아서 / 백제대학 백암미술관
1999. 5. 정기모임-한국정신과의 교류전 논의
1999. 8.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1999. 10. 정기모임-전북회화회 10주년 기획논의
1999. 11.~12. 전북회화회 편집 모임, 제7호 전북회화지 발간
1999. 12. 17~12. 23 전북회화회 10주년
-1999 vs 2000 전북회화와 한국정신 교류전
-특별기획(그림이 있는 찻상 풍경전)
2000. 5. 18 정기모임
2000. 6. 22 정기모임-신입회원 김승호
2000. 8. 18 테마여행-고창 고인돌(이기화)
2000. 8. 3~18 포스코 대전(포스코문화 갤러리)
2000. 9. 16 정기모임-전북회화지 논의
2000. 11. 8~14 전북회화회전(민촌)
2000. 12. 15 정기모임-신입회원논의
2001. 1. 11~12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신입회원:김란, 류명기)
테마기행(실상사, 흥부마을)
2001. 4. 10 정기모임-홈페이지제작 및 교류전 논의
2001. 11. 19~11. 25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부산)
2001. 11. 30~12. 6 전북회화회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교류전(전북대 삼성문화관)
2001. 12 정기총회 및 임원선출 (회원탈퇴-류명기, 류일선, 엄기석)
2002. 2. 28 정기모임-신입회원 추천 및 연간계획
2002. 6. 7 정기모임-전시회 및 회화지 논의
2002. 7. 10 신입회원 환영회 및 스케치여행 논의
(신입회원-강화정, 심소연)
2002. 8. 16 정기모임 및 스케치여행-섬진강 일원
2002. 10. 12 정기모임-전시회 및 전북회화지 발간에 대한 논의
2002. 11. 22~28 제10호 전북회화지발행 및 정기전시회 (경원아트홀)
2003. 3. 정기총회
2003. 6. 전국 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운영위원모임
2003. 8. 정기모임-실기대회 추진계획 및 회지논의
2003. 10. 정기모임-실기대회 운영 및 정기전 논의
(신입회원-박지혜,김영애,윤호,이혜련,최윤경,이광원)
2003. 10. 23 제1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 개최(전주덕진공원)
2003. 11. 정기총회-시상식 및 입상자 전시 및 정기전논의
2003. 11.30~12.6 제11호 전북회화지 발행 및 정기전
제1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국립전주박물관 사회교육관 기획전시실)
2004. 3 정기총회
2004. 4. 17 신입회원환영식및야외스켓치여행(구 ,산동)
2004. 6 정기모임 : 제2회전국청소년전통회화(한국화)
실기대회운영위원모임
2004. 8 정기모임 : 실기대회및회화지논의
2004. 9. 22 실기대회(덕진공원)
2004. 10. 24 제12호전북회화지발간(정기전및시상식-국립전주박물관)
2004. 12 정규총회
2005. 2 도예캠프 '위봉사' 및 신입회원 환영식
2005. 5 정기모임 :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계획
2005. 7 제3회 전국청소년 실기대회개최(덕진공원)
2005. 8 정기모임 : 실기대회전시 및 시상식
회화회지(회화회 부산,대전 교류전) 논의
2005. 12 정기총회 / 제13회 전북회화지 발간
먹빛 형상전(전북회화회, 대전 · 부산 교류전)
2006. 2. 18 대천MT, 스케치
2006. 7.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덕진공원)
2006. 8. 12 제4회 전국청소년 전통회화 실기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회 (우진문화공간)
2006. 12. 8 정기모임 - 정기 전시 논의 (신입회원 김서영)
2006. 12. 15 정기 전시 (예술회관)
2006. 12. 5 제14호 전북회화지 발행
2007. 1. 5 부안 한국미술세미나
2007. 2. 1~1. 26 뉴욕전시 (월드 파인아트 갤러리)
2007. 10. 5~14 정기전시회(민촌아트센터)
2007. 12. 12 전북회화 발행 (제15호)
2008. 2. 5 부안 격포 학술세미나 및 스케치여행
2008. 9. 8~11 부산교류전 (지 묵 현재, 지금 여기)
2008. 11. 20~26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08. 11. 20 전북회화 발행 (제16호)
2009. 11. 정기 전시 (우진문화공간)
2010. 3. 25 정기총회
2010. 7. 5 정기모임 - 전시및 스케치여행 논의
2010. 8. 13~14 부안 MT. 스케치여행및 먹빛체험
2010. 10. 20 정기모임-회화지자료제출 및 교정
2010. 11. 8 통권 제17호 발행(신입회원 이봉금)
2010. 11.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스튜디오)
2011. 8. 16~21 정기전시회(교동아트센터)
2011. 9. 23~24 정기세미나(유안순게스트하우스)
2011. 12. 21 통권 제18호 발행
2012. 8. 28~9. 2 정기 전시(교동아트센터)
2012. 12. 3 통권 제19호 발행
2013. 6 하계 MT.(전남 중도)
2013. 9 신입회21원(송현성)
2013. 12. 10~15 정기전(교동아트센터)
2013. 12. 통권 제20호 발행
2014. 2. 13 정기모임(신입회원-송태정, 이동형, 최윤진)
2014. 8. 13~19 정기전시회(도립미술관 서울관)
2014. 8. 20~10. 22 최북미술관 대전(최북미술관)
2014. 8. 23~24 하계 M.T(무주)
2014. 12 통권 제21호 발행
2015. 11 정기모임
2015. 12. 10~29 정기전시(갤러리 누벨백)
2015. 12 통권 제22호 발행
2016. 11. 18~12. 9 정기전시 (갤러리 누벨백)
2016. 12 통권 제23호 발행
2017. 12. 1~8 정기전시 (남원 예가람길 갤러리)
2017. 12 통권 제24호 발행
2018. 2. 10 정기총회
2018. 4. 11 정기모임 - 송태정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6. 28 정기모임 - 박지예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0. 24 정기모임 - 박성수 회원 작업실 방문
2018. 11. 13~19 정기 전시 (갤러리 누벨백)

C.O.N.T.E.N.T.S.

03 올해의 작가
04 전북회화회 발자취
06 전북회화회 전시리뷰

나의작업노트

08 김근미
09 박성수
10 박지예
11 방정엽
12 송태정
13 송화정
14 안순금
15 유예빈
16 이명자
17 이승훈
18 이우정
19 이진숙
20 이철량
21 이환배
22 정미현

작가와 작업실탐방

23 박성수, 박지예, 송태정 작가 | 글 송태정

예비작가 인터뷰 | 글 유예빈

28 오은진
30 송채은

전북전시리뷰 | 글 편집부

32 전라굴기 典
33 EAT PLAY LOVE 典
34 제28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졸업작품전
35 선비의 숨결 사군자 典
36 OPEN SPACE NU-E 개관전

미대생이 바라본 전시

37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윤형근 작가와 정재호작가 전시를 보고 | 글 박보미
39 아직 살아 있다 전시를 보고... | 글 조성익

기자의 눈

41 서양화가 서수인 개인전 - 누벨백 | 글 이병재 기자
42 김영란의 여덟번째 이야기 '품다' - 갤러리 숨 | 글 김상기 기자
43 10인의 광야전 - 기린미술관 | 글 박은 기자

특별기고

44 지류문화재를 손상시키는 요인 | 글 이채훈

수필

46 고요함과 여유를 찾는 생활 | 글 이승훈

기행문

48 딸과 함께 2박3일 일본여행 | 글 이진숙

여적

50·51 읽을만한 책 / 회원주소 | 편집부
52 편집후기 | 편집부

Chonbuk Painting Association, Number 25,2018. ▸▸
전북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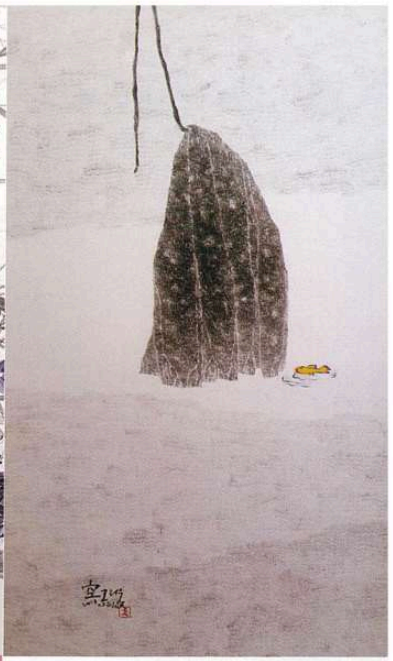
2018 전북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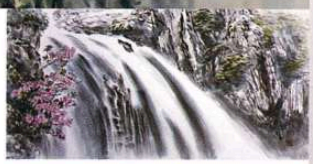
2018. 11. 13 화~11. 22 목

gallery 누엘 백

김근미 박성수 박지예 방정엽 송태정 송화정 안순금 유예빈
이명자 이승훈 이우정 이진숙 이철량 이환배 정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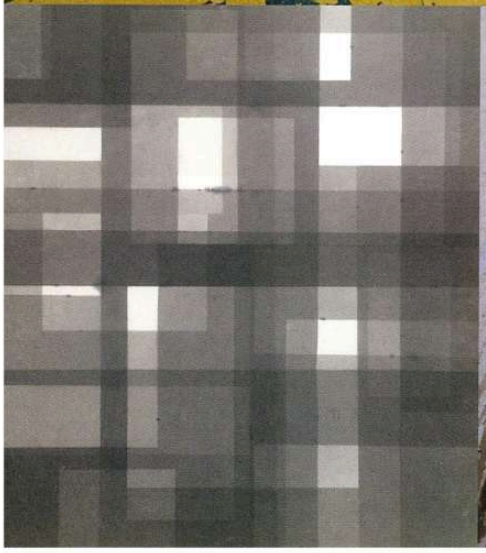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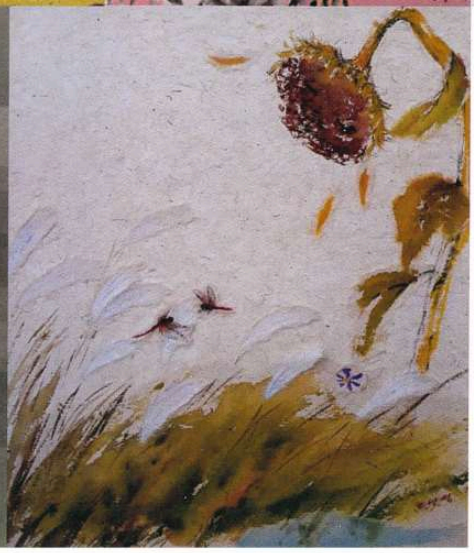












누드 / 70×135cm / 배접지에 수묵담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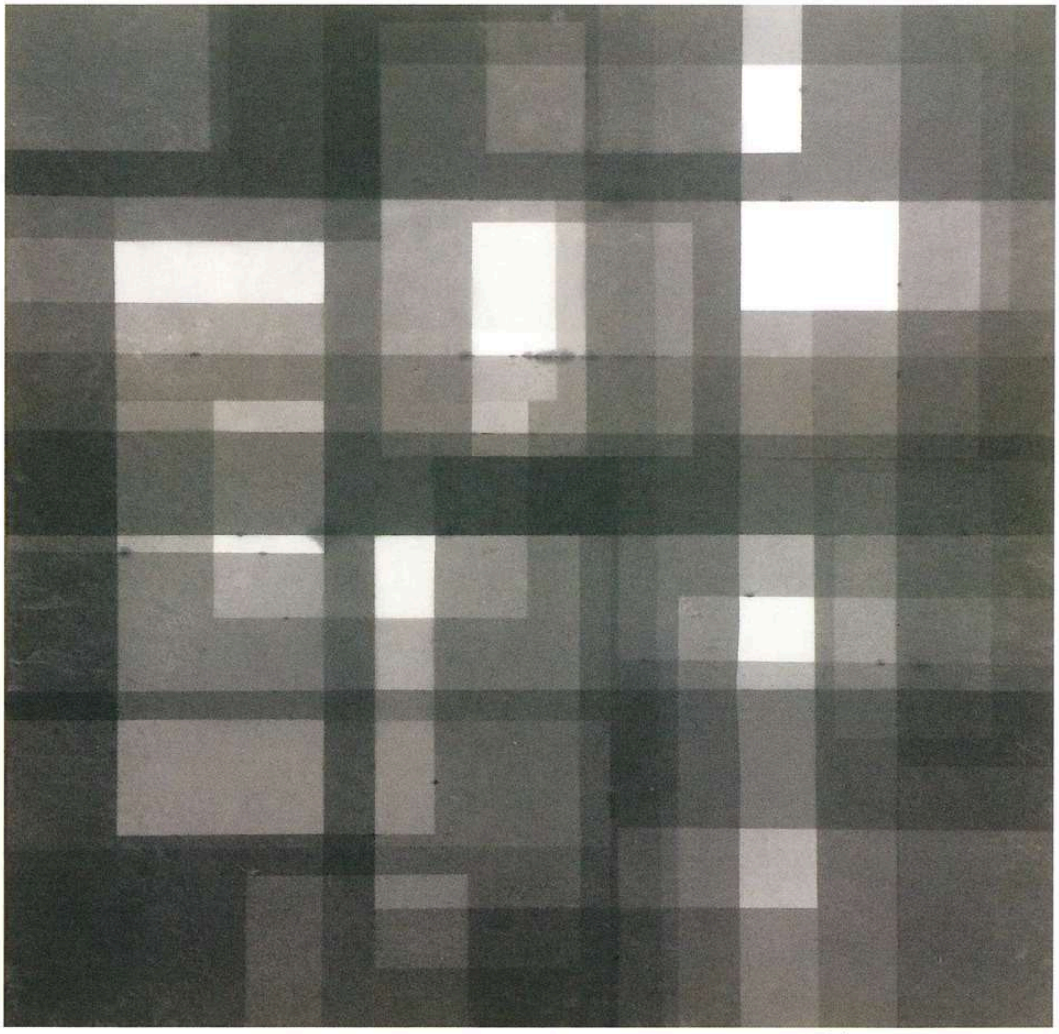
인물이 주는 다양한 교감은 다른 어떤 사물에 비할 수 없다고 본다.

아직은 먹의 경지에 첫걸음도 떼지못한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학습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려진 그림이기에 아무런 표정없는 여인일지라도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절실하게 느끼는 ..

김 근 미 (Kim, Geun-mi)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 • 토닥토닥회 • 전주누드크로키회 • 건지전 • 현) 용지중학교 재직중 • 작업실 : 학봉1길 3 놀노루 스튜디오 • 전화 : 010-4124-3257
• E-mail : babari4@hanmail.net



풍경 / 66x66cm / 화선지에 수묵

나의 풍경시리즈에는 산 또는 건물과 같은 현실 속 풍경이 아닌 온라인 속 풍경이 그려진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의 큰 틀 안에 사각형의 화면을 또 만들어 그 안을 스프레이로 그려진 선과 면들로 채웠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일상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 혹은 핸드폰의 액정 속을 표현한 것이다. 또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는 무수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정보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스프레이로 표현하게 되었다.

박 성 수 (Park, Sung-so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일반대학원 졸업 • 개인전 12회 • 그룹전 100여회 • 현)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출강
• 경기창작레지던시(2014~2015) •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2011~2012 단기)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5-9 • 전화 : 010-9992-3661
• E-mail : sspark0308@yaho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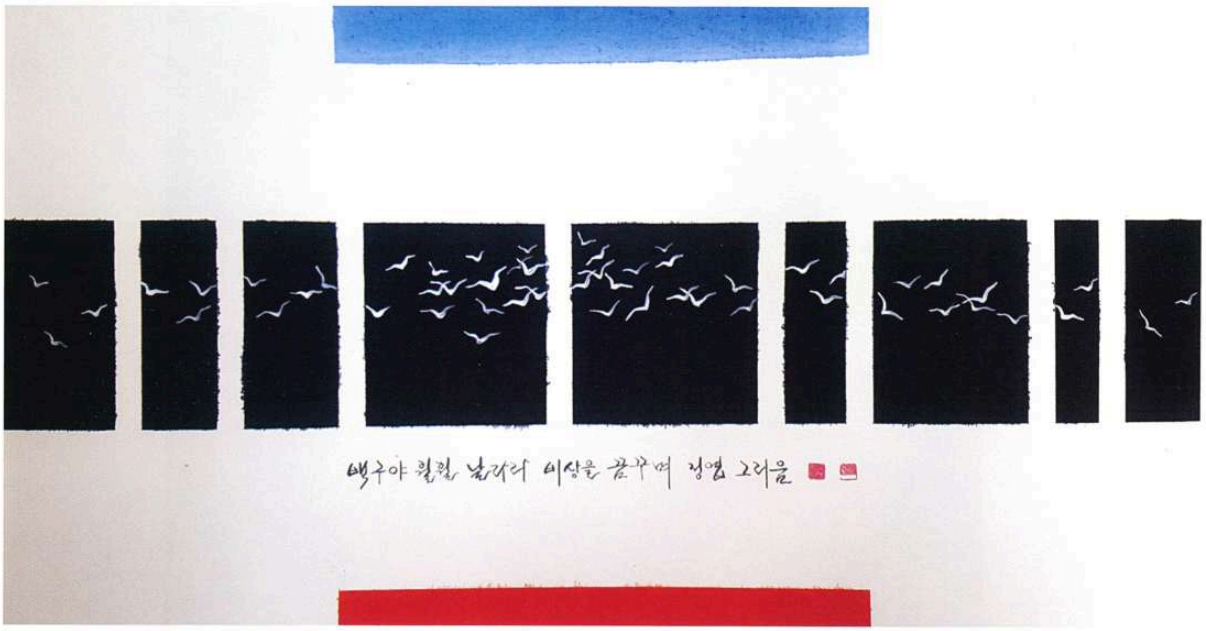


念1 / 132x66.5cm / 종이에 수묵담채 / 2018

금마면을 가로지르는 옥룡천을 사이에 두고 고도리 석상이 동서로 마주 보고 서 있다. 고도리는 옛도성이라는 뜻의 고도[古道]+리[里]이다. 보물 46호로 지정되어 있다. 두 석상은 남자와 여자인데 옥룡천 때문에 평소에는 만나지 못하다가, 섣달 해일[亥日] 자시[子時]에 옥룡천이 얼어 붙으면 서로 만나 안고 회포를 풀다 닭이 울면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석상의 사랑이야기를 그려보았다.

박 지 예 (Park, Ji-ye)

•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졸 • 전북대 대학원 박사 • 개인전 7회 • 현) 충북대학교, 국립전주박물관 강사 / 전북대학교박물관 전문연구원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4-6, 3층 작업실 • 전화 : 010-2658-7822, (집) 063-228-7822 • E-mail : pjy7822@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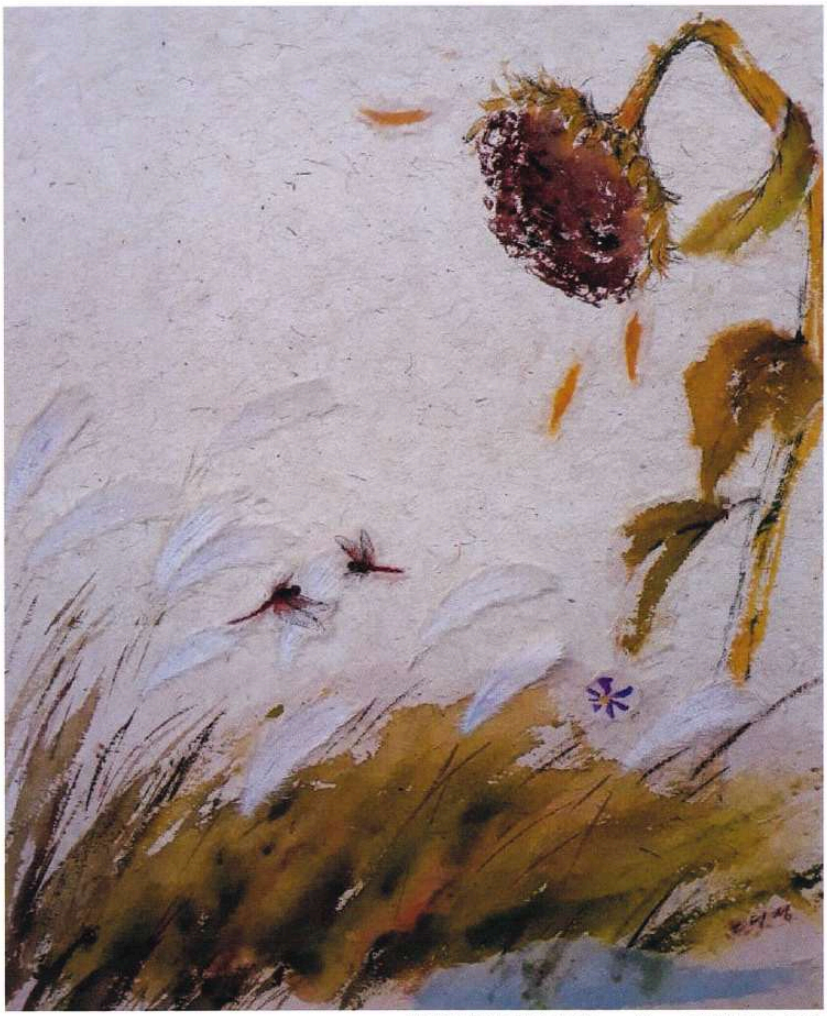


비상을 꿈꾸다 / 110cmx60cm / 캔버스천+채색 / 2018

보긴 터널을 지나온 아이는 의외로 담담해 했다.
시험 잘 치렀냐고 물어보지 못했다.
터널 뒤에 또 다가올 터널을 가르쳐주는 건 너무 잔인하다.
터널과 터널 사이에서
잠깐씩 마주치는 밝은 빛을 즐기라는 것 밖에는.
살다가
한 번 쯤은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비상하는
새떼의 날갯짓을 꿈꾸며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틀에 박힌 개똥철학을 얘기해 본다.

방 정 엽 (Bang, Jeong-yeop)

• 전북대 미교과졸 • 전북회화회 · 미협회원 • 現) 전주고등학교 재직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대우진버들아파트 207-802 • 전화 : (063)246-3073, 011-681-7127



해바라기의 가을날 / 80cm×60cm / 한지에 채색, 2018

바람 좋은 가을날

해바라기는
그렇게
가을을 만나고 있었다.

송 태 정 (Song, Tae-jeone)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전주교육대학원 졸업 •2017 초대전1회 (전북지방경찰청) •2017 개인전2회 (교동아트센터) •2015 개인전1회 (미국 스캇데일 갤러리, 썬 갤러리)
•아트페어전 및 단체전 : 2012, 2010, 2007 아트페어전3회 (한국 소리문화전당) / 2004-2018 건지전(세종문화회관, 교동아트센터 등) / 2011 아메리카, 미술로 들여보기전(LA-verdugo gallery) / 2013-2015 센디에고에 부는 바람전(미국 센디에고 거리) / 2014 최북미술관 초대전(최북미술관) / 2014-2017 전북회화회전(서울인사아트센터, 벨벡등) / 2016 예술목회 연구원 특별 기념전(미국) / 2016-2018 버질아메리카전(서울, 미국) / 외 단체전 및 공모전 60여회 참가 •건지회원, 한국 미술 협회회원, 전북 회화회원, 버질아메리카 회원
•전북 전주시 전주오송초등학교 재직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번지 진흥더블 파크 311동 504호 • E-mail : dduknemi@hanmail.net •Tel : 010-9860-3883



풀꽃 / 68cm×136cm / 한지에 수묵담채, 2018

소리 내어
풀꽃이라 발음하면
코 끝에
싱그러운 풀내음이 난다

어린 시절
농부이신 아빠와 걸었던
새벽의 이슬 채인 논두렁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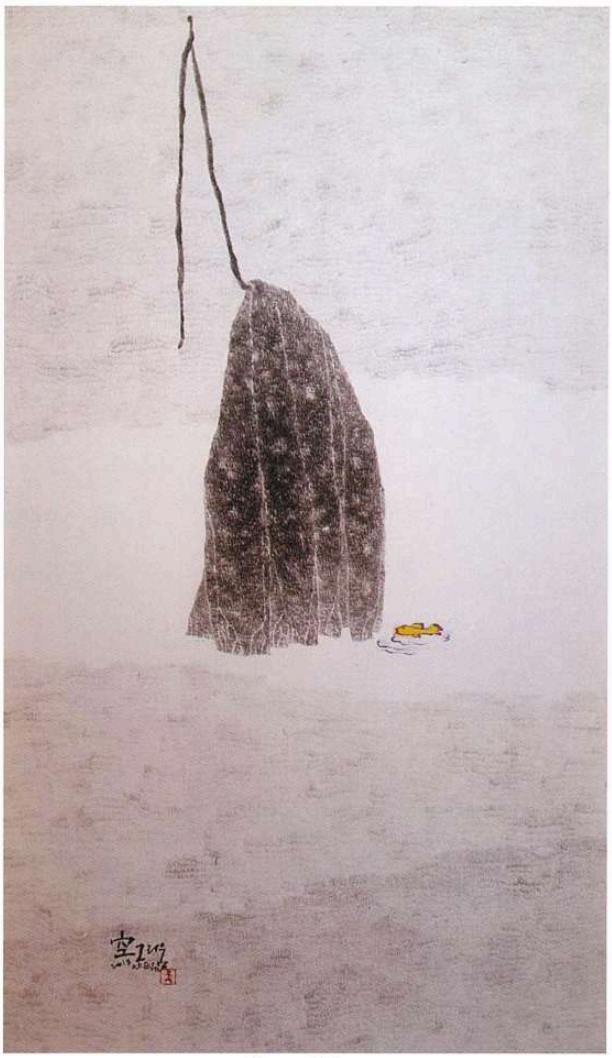
친구 떠난 쓸쓸한 자리에서
부는 바람에 가로눕던
하얀 망초꽃..

풀꽃이 서로 엉겨
어울린 모습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리움이다

붓으로 그려내며
풀잎과 꽃들이 교차될 때마다
내 고운 추억들도
함께 엉기며 소환된다

송 화 정 (Song, Hwa-Jeong)

•전북대 미술교육과 졸업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4길 15-6 •전화 : 010-4185-1885 •Email : ilikegogh@hanmail.net



空 – 그리움 / 97×123 cm / 수묵 · 아크릴, 2018

오늘도 모악산이 계속 되는 황사로 인해 멀리 신기루처럼 서 있다. 뻗어 나온 산세(山勢)는 보이지 않고 하늘과 산의 경계만 지닌 채 평면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계절을 지나오며 지니고 있던 웅장한 경계의 덩어리들을 모두 감추고 연무(煙霧)속에 시간, 사람들,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과 함께 숨듯이 저 멀리 서 있다. 그리고 그 진한 회색 하늘 뒤로 오랜 그리움과 그 지쳐가는 그리움을 간직한 시간들도 숨는다.

안 순 금 (An, Soon-geum)

•전북대학교 미술교육 학 · 석사, 영국 코벤트리 대학 석사 •개인전 3회 – 1997. 얼화랑(전주), 2004. The Glass Case, Herbert Art Gallery & Museum (Coventry, UK.), 2005. 우진문화공간 기획 초대전(전주) •단체전 및 기획전 : 젊은 세대 새로운 시각과 조형전, 전라한국화제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전– '전북 미술의 조명'
•現)전북회화회 회원 •現) 김제여자고등학교 재직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433-1 •전화 : 010-2635-6314, 063) 546-2517 •E-mail : f12-4@hanmail.net



선택 / 70x100cm / 순지에 수묵담채, 2018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 문제의 무게는 너무나도 다양하지만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겁이 많다.
선택 전, 생각의 늪에 빠져 겪는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느껴지는 무력감을 표현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과 선택, 후회의 감정들을 겪을 것이고 그로 인해 나는 성숙하고 싶다.

유 예 빈 (Yoo, Ye-bin)

•전북대 미술학과 졸 •개인전 1회 •단체전 및 대전 30여회 참여 •전북회화회 •현)하니미술학원 원장 •주소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4-6 •전화 : 010-5649-7578
•E-mail : youngbooss@naver.com



달맞이꽃 / 21×30cm / 세라믹, 2018

산책길에서 만난 자연을 그리며 나의 발걸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

조금은 비우며 가볍게 살고 싶다.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을 천변 길을 걸으면서 어느 농민이 심어놓은 도라지와 만나고

수줍은 듯 숨어 있는 달맞이꽃도 만난다.

그들을 그린다.

강한 생명력의 아름다움을 보며 나도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다.

이 명 자 (Lee, Myong-ja)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과 졸업 •2010년 2012년 전북아트페어(한국소리문화전당)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1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입특선 4회
•세계서예비엔날레 입선 1회 •대한민국 새천년 서예문인화대전 입선 1회 •춘향미술대전 입특선 3회 •영호남 미술교류 소통 & 만남전 외 다수그룹전 출품
•현)남원고등학교 재직 •주소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낙산 4길 111-6 •TEL : 자택(T) : 063 547 5896, 직장(T) : 063 630 7923, 010-8004-5895 •E-mail : mjlee0117@hanmail.net








사계 / 70×250cm / 지본수묵,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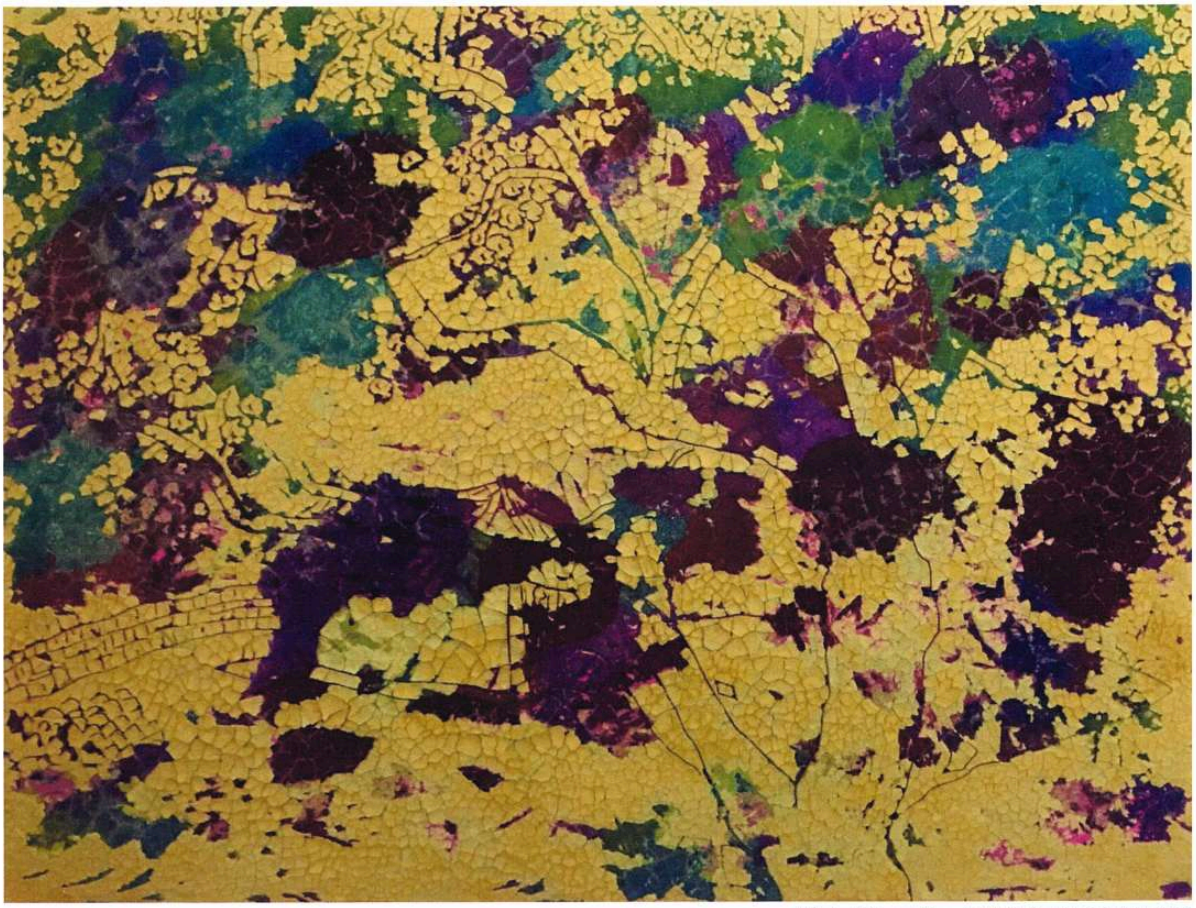
언제나 기다림은 있다. 겨울에는 봄을, 봄이 갈 때에는 다시 봄을, 여름엔 겨울을, 가을에는 다시 가을을 기다린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느낌으로 다른 계절을 기다리겠지만. 미루어 다시 돌아올 계절은 지금의 현상에서 좀 더 나아진 것을 바라는 심정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 있다. 아모르파티. 운명을 사랑하라고. 운명론자가 되지 말고 운명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라는 말씀. 이날, 이 계절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견뎌내야 한다고.

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아름답구나.

이 승 훈 (Lee, Seung-hoon)

•전주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개인전 2回 •전북아트페어전 출품 외 단체전 다수출품 •전북중견청년작가전 •익산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출품 •시화집 〈빈들의 소곡〉, 〈달개비 꽃 하늘〉 출간 •미술문화컬럼집, 〈감성 그 시간 속으로〉 출간 •한국미협, 전북미협, 익산미협, 지붕전, 전북회화회, 아트회, 동이회, 현대드로잉회 會員 •現)군산대성중학교 재직 •주소 : 94658 전북 익산시 배산로 91-9, 303동607호 (모현3차 현대아파트) •직장전화 453-2127, 전화 063)851-0577, (H · P)010-4115-0577 •E-mail : misege@hanmail.net



쩌그.. / 90cm×70cm / 종이에 아크릴 혼합재료, 2018

추억이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가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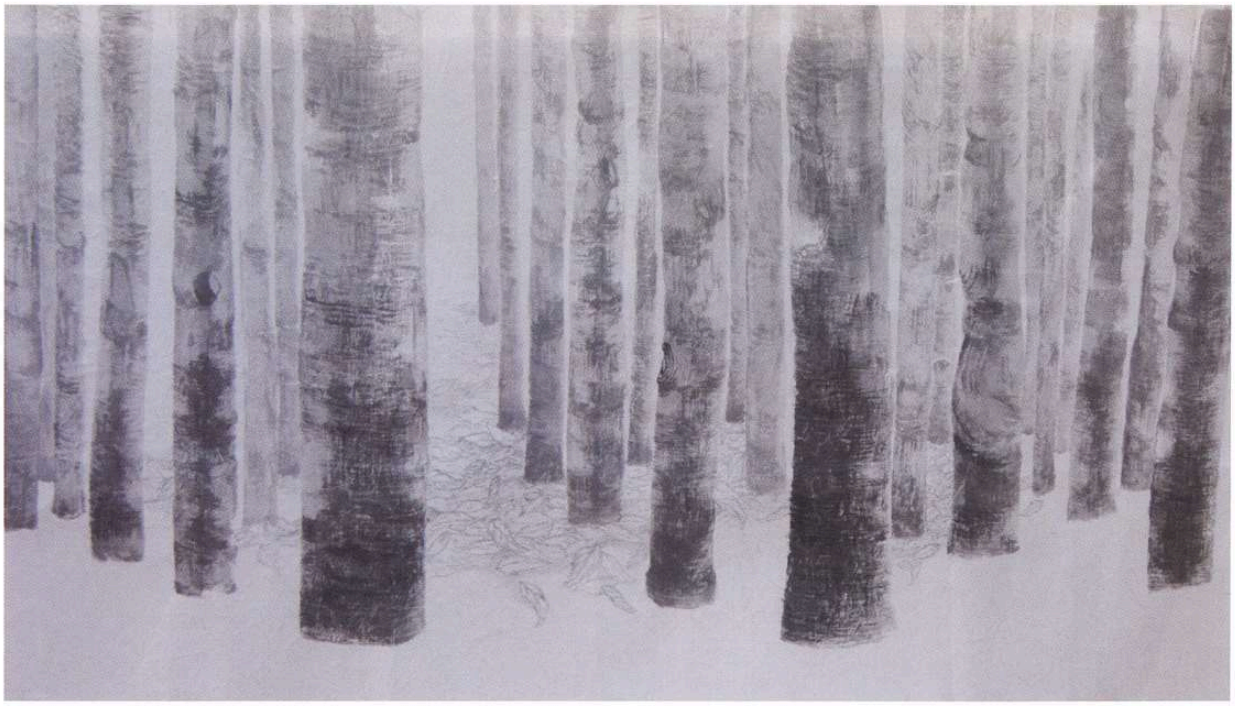
눈으로 그린다.
참 마음에 든다.

애써 색깔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이쁘다.

그래서 좋다.

이 우 정 (Lee, Woo-jeong)

•우석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 수료 •개인전 4회 •현) 전북회화회, 환경미술협회, 우묵회 회원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서곡 현대아파트 101 / 202 •전화 : 010-3299-2221



나무야, 나무야 / 118×48cm / 장지에 수묵, 2018

참을 수 없을 만큼의 더위가 힙쓸고 지나간 자리에 많은 나무들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러한 인고의 세월을 이겨 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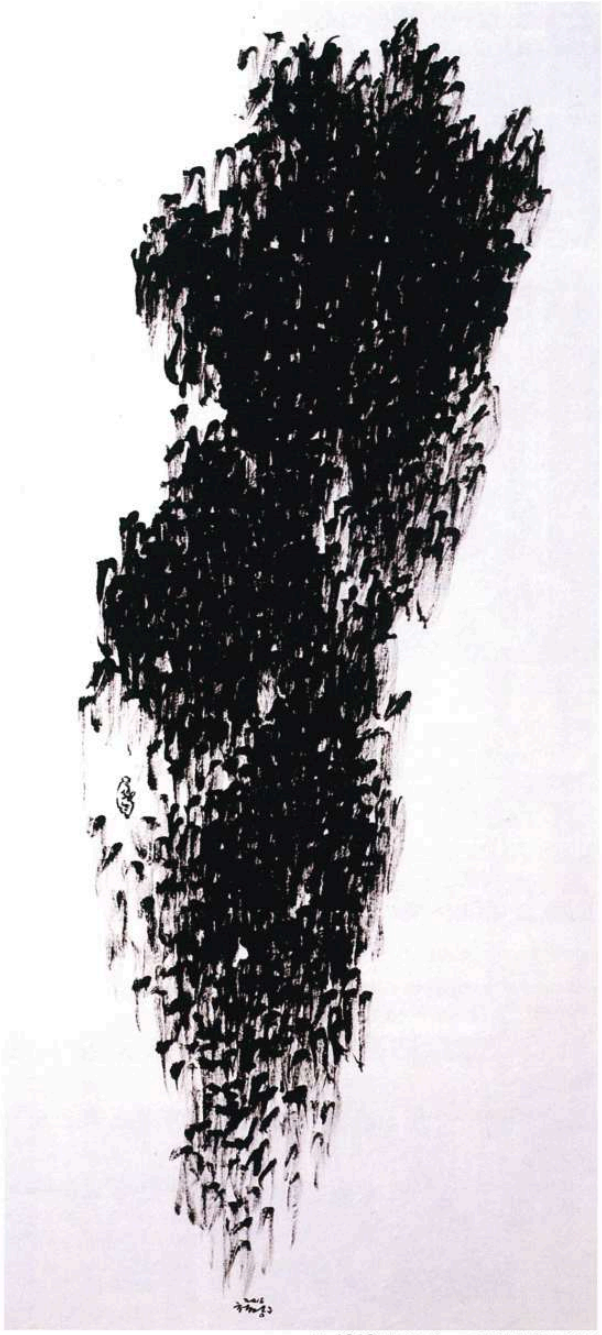
단풍의 계절도 점점 저 넘어로 돌아가고

어둡고 지루하지만 찬란한 봄을 기다리며 움츠리고 있는

많은 중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 숙 (Lee, Jin-sook)

• 원광대학교 졸 • 개인전 7회 • 그룹전 및 대전 다수 출품 • 현) 한국미협, 원묵회, 전북회화회, 전통미술교육연구회, 봄바람전 • 전주시 덕진구 정암길 67-17
• 전화 : 010-4605-9876 • E-mail : waltzz@nate.com



city1816 / 150x79cm / 종이에 먹, 2018

도시는

나와 우리 모두의 삶의 기반이며,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러나 또한 좌절과 절망의

늪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도시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 철 량 (Lee, Cheol-ryang)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 2018년 개인전 (토포하우스) •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 • 1988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 1992 선묘와 표현-현대 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 2001 수묵의 향기, 수묵의 조형-한.중.일 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 드로잉-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 2005 한.중 현대수묵전(서울시립미술관) • 도시와 미술(서울시립미술관) • 2011 한국화 재발견전(성남아트센타) • 2012 MANIF SEOUL(한가람미술관)
• 2013 KIAF(Gallery MEE) • 서울 국제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명예교수 • 주소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35-1



墨想 / 150×80cm / 수묵담채, 2018

들국화 향기가 가득한 가을들녘에서

온통 붉은색 단풍으로 갈아입은

앞산자락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추억을 생각하며...

이 환 배 (Lee, Whan-bae)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 •한국화 2인전(전북예술회관) •서울 한국화 비엔날레(시립미술관/서울)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전(홍갤러리/서울) •정선아라리회화제(백상갤러리)
•우리의식공동체전(문예진흥원/서울) •의식의 확산전(예술의전당/서울) •감성표출전(인데코화랑/서울) •동악 71~94(문형궁미술관/서울) •대한민국 청년미술제(인천종합예술회관)
•전라한국화제전(국립전주박물관) •전북회화회전 •前)예원예술대, 전통문화고, 전주예술고 출강 •現)그린섬 총원장 •주소:전주시 덕진구 세병로111 108-1502
• 전화:010-3673-1562, 063)288-4466



묵상 / 91×73cm / 천에 수묵, 2018

고요히 눈을 떠 바라보면 바로 앞 벽에 이렇게 쓰여 진 글이 들어온다.
명상은 눈을 감는 일
YOGA는 마음을 멈추는 일
기도는 경청하는 일
호흡은 자신이 되는 일이라고...
오늘도 그러하였는지 묻는다.
내안에 나에게.
고요하게 스며드는 먹빛처럼

정 미 현 (Jeong, Mee-hyun)

•개인전 7회 •단체전 및 대전 130여회 참여 •전북회화회, 건지전, 전통미술교육연구회 회원
•현) 전주동중학교 재직 •주소 : 565-842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778번지 •전화 : 011-682-3560 •E-mail : hyun3560@hanmail.net



작가와 작업실 탐방

송태정, 박지예, 박성수 작가를 찾아서

글 **송태정** (전북회화회 회원)

우리 전북회화회 회원들은 매년 개인전 및 단체전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회화회에서는 작가들의 개인전을 중심으로 작가들이 어떤 작품세계를 가지고 어떻게 작품을 제작하고, 활동을 하는지 서로가 심도 깊게 알아가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또한 평소에 전시장의 작품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작가들도 개인전이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잘 풀리지 않은 점이나 어려웠던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교수님과 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만남 / 74.5×63cm / 한지에 채색, 2017

이에 몇 달 전에 개인전을 했던 내가 첫 스타트를 먼저 끊게 되었다. 벚꽃 흩날리는 봄날에 아늑한 세미나형 카페에서 '기다림과 만남' 을 주제로 한 개인전 작품의 도록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 개인전에 많은 회원들이 찾아와 축하해주면서 작품을 함께 봐서인지 이야기를 끌어나가기에 좋았다.

송태정 : 저는 이번 작품은 '기다림과 만남' 을 주제로 자연과 가족들을 소재로 하여 기다림과 만남의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엄마를 손꼽아 기다렸던 소녀와 엄마의 만남,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의 엄마와의 만남, 달빛아래에서의 고요한 기다림 등 소소하고 몽환적이면서 동화적으로 작품의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이에 제 전시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훈 : 이번 작품전은 전체적으로 자연을 소재로 해서인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으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지예 : 선생님 작품을 보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시리즈로 전시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지의 여백을 많이 살린 느낌의 작품과 전체적으로 진하게 채색하여 나타낸 작품이 성격이 약간 달라보였는데 각각 개성이 있으니 다음 기획에서는 주제나 표현방식에서 좀 더 통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태정 : 저도 전시장을 둘러보니 두 작가가 했는가 할 정도로 차이가 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인전 준비를 1-2년 하였는데 작품을 하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다보니 처음 기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더군요. 해보고 싶은 것 들이 많이 생기고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니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송태정 : 그 중 하나로 하얀 조팝나무의 꽃을 그리고 싶었는데 한지가 하얀색이어서 표현하기 어려워서 채색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김근미 : 아, 선생님 작품에 조팝나무를 채색하여 그렸는데 다른 그림과 통일감을 주고 따뜻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면 다른 작품처럼 조팝꽃을 한지에 그려서 찢어붙이기 해도 충분히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송태정 : 아,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제 작품은 약간 일러스트 같은 가벼운 느낌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정미현 : 선생님 작품은 가볍다기보다는 시원하고 막힘이 없는 느낌이 있어 좋습니다.

이철량 : 만약 가벼운 느낌이 문제라면 붓질을 여러번 하면서 표현하면 그 느낌이 감해지니 시도해보고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중략....

송태정 : 여러 작가님들의 조언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많이 해결되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작가와의 만남은 여름 끝자락에 박지예 작가의 작업실에서 우리 회원들은 아이스크림과 향 좋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지예 작가는 여러 번 '옆집여인' 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안순금 : '옆집여인' 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많이 하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박지예 : 옆집여인은 내 이웃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또래의 중년여성들이며 또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이며 또한 엄마이고 그리고 평범한 직장동료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들 평범하기 짝이 없는 중년여성들의 일상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물들은 내 주변의 나와 같은 중년여성들이지만 실상은 이들은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어느 듯 인생의 중반에 들어선 평범한 여성으로서 느끼는 삶의 욕망과 나아가 나 개인의 자유를 표출하고 싶었습니다.



박지예 작업실

정미현 : 작품에 나오는 옆집여인들을 약간은 과장되거나 단순화 형태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작가의 의도가 있을 듯 싶네요?

박지예 : 두 아이의 엄마이며 직장을 갖고 되풀이되는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부터 일상에 지친 중년 뭇 여성들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약간은 과장되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단순한 형태로 형상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렇게 하여 여성의 내적인 갈망과 욕구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송태정 : 요즘 작품들을 보면 색이 약간 두드러진다거나 형태가 이그러진 듯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작품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가고 있는지요?

박지예 : 요즘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욕구가 불타오른다고 할까? ㅎㅎㅎ 그래서 기존에 했던 방식의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제된 색보다는 야광색을 써보기도하고 유화처럼 진하게 칠해보기도 하고 배경을 과하게 넣어보기도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옆집여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철량 : 가장 중요한 것이 화면 안에서의 여인들의 심상을 어떻게 나타내는 것 인가 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박지예 : 네. 저는 '옆집여인' 시리즈 초기에는 조형적인 요소인 형태에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형태보다는 심상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났고 느꼈던 여인에 대한 감정이나 그 여인의 심정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리고 작품속의 여인에 나를 투영하고 싶어서 붓을 쥐고 있는 순간순간의 나의 느낌과 감정을 많이 나타내려고 있습니다.

.....이하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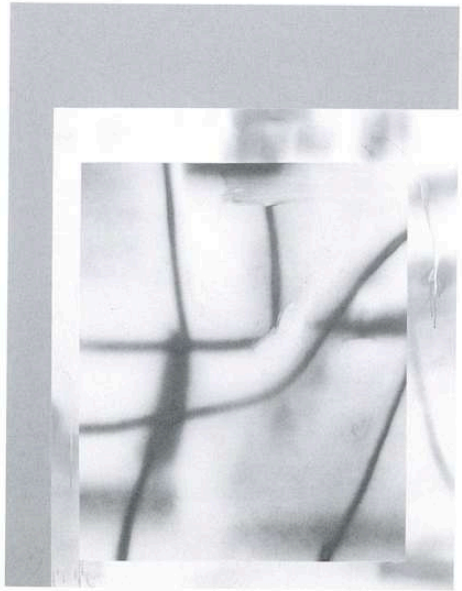
박지예 : 오늘 교수님께서 지도말씀 해주신 심상의 중요성과 작품을 풀어나가는 생각의 전환 대해 이야기해 주신 것, 또한 여러 작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앞으로 작업 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 번째 작가와의 만남은 박성수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박성수 작가는 '서신갤러리' 에서 지원해주는 전업 작가로 서신갤러리 4층에 소재하고 있었다. 큰 작업공간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고 있는 젊은 청년작가의 작업세계가 펼쳐졌다.

먼저 박성수 작가는 대학졸업 후 전문적으로 작업에 대하여 심도 깊게 고민했던 대학원에서의 작업활동부터 현재까지의 작업 변화모습을 스크린으로 보여줬다. 초기의 작품은 자신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해왔던 학교 캠퍼스의 자연풍경과 인물들을 녹색이라는 단색을 이용하여 단순화하게 형상화 시키는 작업을 주로 해왔다.

점점 작업의 세월이 흐르면서 먹을 이용하여 건물과 도로와 같은 문명이 숨쉬는 도시의 모습을 자연과 함께 즐겨 그리고 '자화상' 시리즈도 선보였다. 브르핑이 끝나 후 최근 전시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정미현 : 작년 도립미술관에서 청년작가 초대전에 전시된 작품보고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품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고 무엇을 나타냈는지 궁금하네요.



박성수, 풍경연구

박성수 : 그 '풍경' 시리즈는 산 또는 건물과 같은 현실 속 풍경이 아닌 온라인 속 풍경을 그렸습니다. 주위의 자연과 도시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때에 그것들이 반영되어 풍경화로 표현 되었듯이 현대인의 삶속에서 중요하게 한 부분이 되어버린 컴퓨터와 핸드폰 같은 사물속의 시각매체를 반영하여 '풍경'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방정엽 : 표현한 도구가 먹이나 전통회화도구가 아닌 다른 도구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나요?

박성수 : 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림의 큰 틀 안에 사각형의 화면을 또 만들어 그 안을 스프레이로 그려진 선과 면들로 채웠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일상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의 모니터, 혹은 핸드폰의 액정 속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는 무수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정보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스프레이로 표현하였습니다. 전통한국화 도구로는 이러한 혼재된 듯한 모호한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분사되는 느낌이 좋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승훈 : 스프레이는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사용하고 환기를 잘 시켜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특별히 신경쓰셔야 겠네요.

.....이하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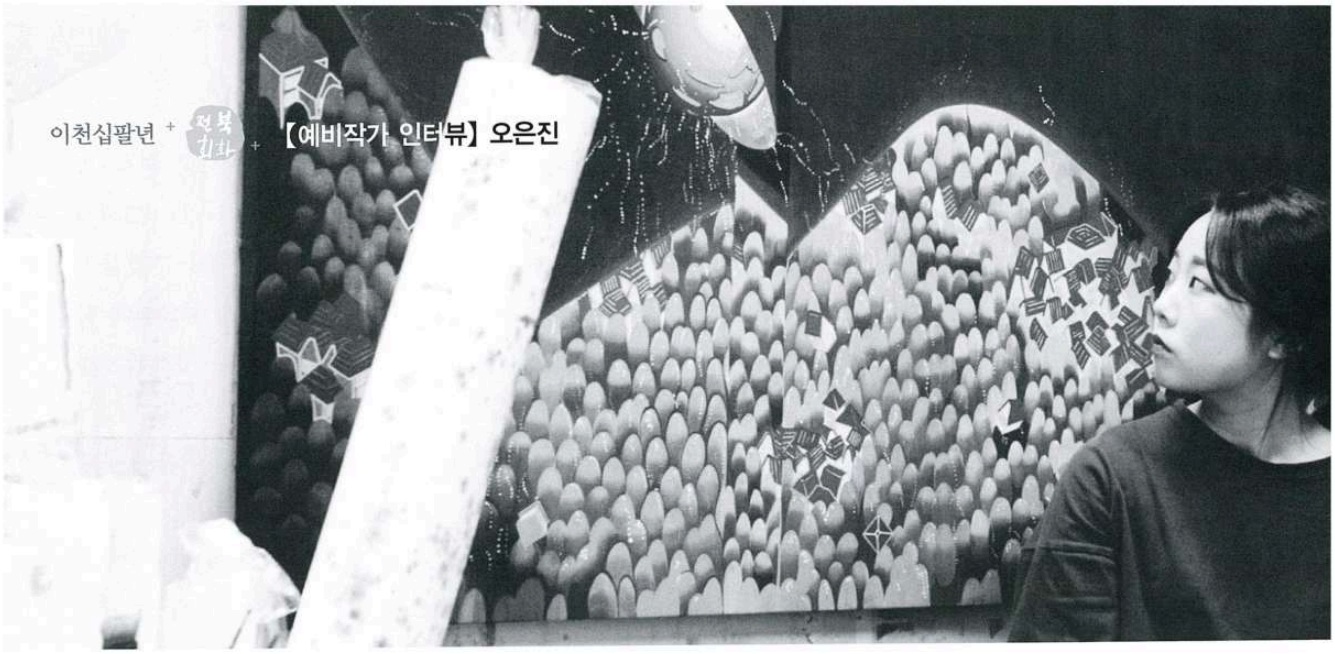
송태정 : 박성수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많은 시도를 하고 변화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작업계획이 알고 싶네요

박성수 : 지금하고 있는 '자화상' 시리즈를 더 연구하고 싶고 인물들의 형상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개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작업실

2018년도 '전북회화회'에서 동료작가 3명의 작가를 만나면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고 작가들이 무슨 생각과 어떤 표현방법으로 작업을 하는지, 또한 그 작품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를 통해 전시장의 작품으로만 보아왔던 작품에 대한 생각보다는 좀 더 깊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작가에 대해 더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싶었고 2019년도는 더 좋은 작품 활동이 기대되었다.



오은진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 **개인전** 2018 공존 展(연석산미술관,완주)
- **단체전**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설치전시(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동상의 신바람(연석산 미술관,완주), 戊戌年 개띠전(연석산 미술관,완주)
  2017 OPEN_ER(누벨백 미술관,전주), 동상의 신바람(연석산 미술관,완주), 丁酉年 닭띠전(연석산 미술관,완주)
  2016 동상의 신바람(연석산 미술관,완주)
- Cell : 010-6470-8014 • E-mail : d_mswls@naver.com

집이 있다. 이 집에는 사람이 산다. 하지만 사람만 있지 않다.
조용히 잠들어 있는 인형도 있고 책도 있다. 화분에 담겨있는 식물도 있다. 도구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다.
없어서는 안될 물도 있으며 공기도 있다. 누군가의 집에는 함께 사는 애완견이 있다.
문이 열린 틈 사이로 몰래 들어왔던 벌레도 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인간과 같이 삶을 살고 있으며 존재하고 있었다.

글 **유예빈** (전북회화회 회원)

어느 날 화분을 보고 '지구에 인간이 삶을 이루고 사는 것과 같이 화분에도 그들만의 삶이 존재할까?' 라는 생각에 작업을 시작했다. 동양에서는 물(物:만물)이라는 글자에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인간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가 자연현상과 인간에게도 적용된다는 사고 때문이다. 그를 기반으로 나의 작업은 내가 기르던 화분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는 인간의 삶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만물이 공존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인간 사회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집들과 그 안에서 많이 길러지는 화분 또는 자연물들이 주소재가 되며, 의식하지 않으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서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그것은 대상의 크기변화나 빛의 사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삶을 마치 발견한 듯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4학년 졸업예정자 오은진입니다.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말씀 해 주세요.

저는 공존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공간인 집 안에 또 다른 존재를 상징하는 작은 빨간 집을 표현함으로써 공존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존' 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어느날 화분을 보고 '인간이 삶을 이루고 사는 것과 같이 그들도 인간과 같은 삶이 존재할까? ' 라며 떠올렸던 경험을 통해 공존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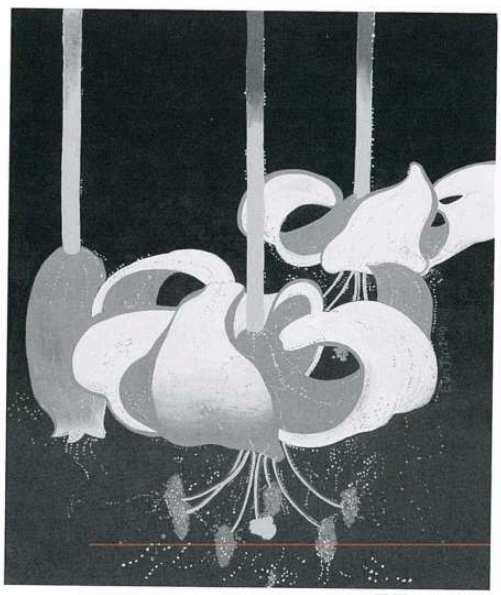
작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는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보던 실내풍경 또는 사물들에게 빛의 표현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 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을 하려고 했습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 깜깜한 지구를 밝혀주는데, 작품에서 달을 등장시킴으로써 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넝쿨같은 이름모를 식물이 돋보이게 보여주었는데, 그것들은 현실과 비현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로서 신비로운 색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진로계획 및 작업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저는 동대학원에 진학하여 작업과 이론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학부 때 많은 이론수업을 들으면서 흥미를 느꼈고 학예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예사를 하면서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작업 방향은 지금의 작품을 연장선으로 주 재료는 한국화 전통재료를 사용하지만 새로운 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조형세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공존 / 34x27cm



공존 2 / 34x27cm



Deerland 2 / 112.1x162.2

송채은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 2018 Deer In The neverland (연석산미술관,완주) / 동상의 신바람展 (연석산미술관,완주) / 개띠전 (연석산미술관)
- 2017 OPEN_ER 단체전 (누벨백미술관, 전주) / 동상의 신바람展 (연석산미술관, 완주) / 닭띠전 (연석산미술관)
- 2016 동상의 신바람展 (연석산미술관, 전주)
- 2015 자화상展 (서신갤러리, 전주)

나는' Deer In The Neverland' 를 주제로 삼아, 작은 흰 사슴과 성을 그린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환상 속 세계와 같다. 사슴은 팅커벨과 같은 요소로,' Neverland' 라는 환상적인 공간인 그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그 곳 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닐며 진정하 휴식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유토피아를 흰 사슴과 함께 나의 화면에 담고자 했다.

글 **유예빈** (전북회화회 회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졸업예정인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15학번 송채은입니다.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말씀 해 주세요.

저는 Neverland를 주제로 삼아, 작은 흰 사슴과 성을 그립니다. 피터팬에 나오는 Neverland처럼 시간이 흐르지 않는, 환상 속 세계와 같습니다. 저의 작품 배경이 된, 시간이 멈춰진 공간은 사슴들만의 유토피아가 되어 성 주변에서 맴돌며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사슴은 육식동물을 피해 다니며 자신의 뿔에 의존하여 방어막을 삼는 약한 초식동물입니다. 현실에서 받는 압박감을 두려워하고 이에 지쳐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는 마치 육식동물을 피해다니는 사슴과 동일해 보였습니다. 보통 사슴은 장수, 영생을 뜻하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흰 사슴은 현실에서 사회규범에 의해 제약 받고 반복된 생활에 지쳐서 작아져 버린 나, 너, 우리를 상징합니다. 사슴은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과 같은 요소로, 'Neverland' 라는 환상적인 공간인 그 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흰색을 보면 항상 '빛(후광)이 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팅커벨 또한 빛을 뿌리고 다니는 존재로서 그런 부분에서 사슴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흰 사슴으로 설정한 이유는 흰색은 심리적으로 감정이나 사고를 정화해주는 뜻이 담겨있고, 우리가 흰 사슴이 되어 Neverland에 들어올 때, 아무런 색도 없는 무채색인 경우, 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다시 재출발을 하려는 자유롭고 싶은 사슴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의 큰 배경인 성 'castle' 은 적으로부터 벗어나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현실세계에서 압박감이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난 사슴들을 지켜주고,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장소 즉, 유토피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빛이 들어오는 감옥 , 보랏빛 검은 숲 속 , 시간이 멈춰진 금시계 , 복잡한 미로정원 등 주변에 있는 사물과 장소를 이용해 우리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을 인지함으로써 흰 사슴이 현실세계를 자각하고 있다는 것 또한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작품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난 가상의 세계인 Neverland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닐며 진정한 휴식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유토피아를 흰 사슴과 함께 나의 화면에 담고자 했습니다.

Neverland' 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 또는 'Neverland' 를 작업에 풀어내기 위해 행한 것들

처음에 무슨 작업을 해야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고민 끝에 "내가 그렸을 때 재미있게 그릴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해보자" 하는 마음에 동물과 환상적인 우주를 배경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때 그린 작품 느낌이 저와 잘 맞아서 그런지 3학년때부터 자연스럽게 동화적인 느낌을 살려 그리기 시작했고, 흰 사슴을 작품에 넣어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과 같은 존재로 설정하여 사슴들의 유토피아인 Neverland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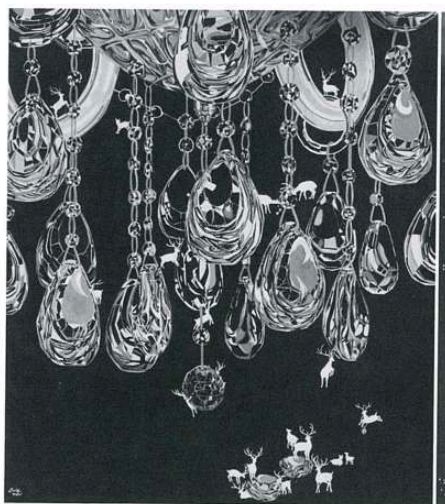
작업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또는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무엇이었나요?

작품 부분마다는 장난감처럼 아기자기한 느낌을 주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려하고 몽환적인 색감으로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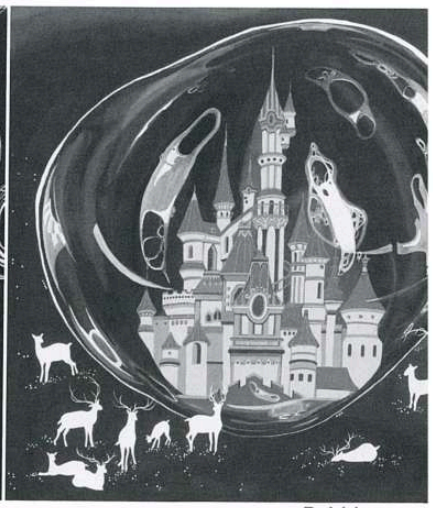
앞으로의 진로계획 및 작업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할 예정입니다. 석사까지 마친 후 임용을 본 다음 학교 미술선생님을 하면서 내 공간을 만들고 그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딱딱했던 본래 그림에서 좀더 풀어진 부드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Chandelier in the deer / 162.2x130.3cm



Bubble / 20x20



全羅崛起(전라굴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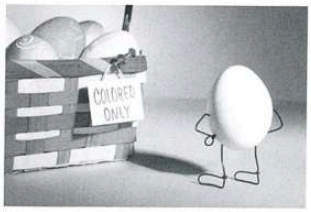
2018. 10. 20 - 12. 09
전북도립미술관

전라굴기전은 전라도라는 지명이 이름 지어진지 10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이다. 전라도는 아름다운 산하를 통해 오랫동안 독자적인 한반도 문화를 형성해온 대표적인 곳이다. 이처럼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드넓은 곡창에서 생산된 풍족한 곡물이 넘쳐나는 고장으로서 일찍이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또한 그로 인해 미술문화가 뿌리 깊은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외래의 수탈과 침략의 대상으로서 자리했고 그로인해 가혹한 역사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고 묵묵히 천년을 지켜온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행사였다.

이 전시는 천년동안 끈끈이 이어져온 전라도 사람들의 삶과 역경을 돌아보는 〈전라사람〉 과 아름답고 넉넉한 품을 하고 있는 산과 물을 이어받아 풍요롭고 비옥한 너른 평야를 담은 〈전라산하〉 그리고 앞으로 이어나아가야 할 미래의 꿈과 희망, 그리고 웅장한 용기를 품어보는 〈전라굴기〉등 3개의 큰 주제로 형성되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 천년역사 속에서 항상 변두리로서의 인식과 부족했던 전라인의 자존감을 탈색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지역의 강인한 역사와 문화적 풍요가 새롭게 드러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크게 일어나라 전라여” 라고 전시 주제가 외치고 있듯이 전라미술이 앞으로 새롭게 비상하길 기대한다. 〈편집부〉

EAT PLAY LOVE 展



TERRY BODER (1965생 미국)
먹고 · 즐기고 · 사랑하라



2018. 11.4 -12. 13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시장

미국 작가인 테리 보더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소재들에 철사를 구부려 붙여 일상의 삶과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을 자신의 독특한 위트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작가다.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해 독자적인 유머와 작품의 언어를 자신의 블로그와 SNS를 통해 알리고 또 널리 알려지면서 유명해 졌다.

그의 작품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먹고 있는 음식에 팔다리를 붙여 인격화 한다. 즉 빵, 과자, 계란, 과일과 같은 식품과 식사 용구들을 비롯하여 손톱깎기와 같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일상의 소품들에게 기발하고 참신한 상상력을 부여하여 전혀 다른 인격체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처럼 사물에 인격을 부여한 예술기법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철사를 이용해 독자적 방법을 통해 의인화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해는 테리의 벤트아트는 매우 이채롭다고 할 수 있다.

테리 보더는 "저는 온갖 종류의 음식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요. 이 작업의 가장 큰 장점은 사진을 찍고 나 후에 그것들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두 개의 과자가 포옹하는 순간을 담은 작품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향연' 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해요.

사랑이란 인간과 인간을 결합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 최초의 몸을 되찾으려는 갈망입니다." 라고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고 있다. ▲ 〈편집부〉

제28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 졸업작품전

김승현 신선아 김효훈 오은진 김유라 오승주 송영대 장수지 송채은 황혜정

2018. 11. 20 - 25
교동미술관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 전공에서 28번째로 작품전을 가졌다. 졸업작품전은 사실 매년 의례적으로 열려왔지만 이즈음 미술을 전공하는 졸업생들의 작품전을 쉽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각 대학 미술학과가 학생들의 외면으로 폐과가 되어왔던 터여서 더욱 의미가 큰 전시라 할만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미술의 중심체로서 한국화의 추세는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어 이번 전북대학교 한국화 전공졸업전은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졸업전에 참여한 학생들 김승현, 김유라, 김효훈, 송영대, 송채은, 신선아, 오승주, 오은진, 황혜정, 장수지 등 10명으로 각자의 성격이 뚜렷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들 전시에 대해 임승택 학장은 이 전시에 대해 "우리나라 한국화는 보편적으로 대상에 직관적 접근을 하면서 간결하고 담백한 깊이의 표현성을 지니는 수묵 처리 방법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긴시간 동안 한국적 문화전통과 자연을 표현하면서 정체성을 지닌 고유한 한국미술의 뿌리로 작동하였다." 고 한국화를 정의하면서 나아가 "현대한국화는 과거의 형식이나 내용과 달리 다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세계에서 예술가는 과거나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독특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조형적 지평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라" 고 하였다.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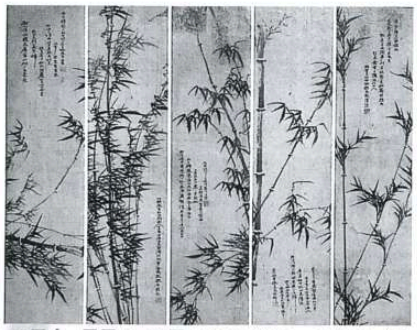
이들 졸업생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 전북지역의 한국화의 지평을 확대하고 훌륭한 작가들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KBS전주방송총국 방송 80년

선비의 숨결 사군자

2018. 6. 27 -8. 26

전주 KBS갤러리



조주승, 묵죽도 10곡 / 127.5×32.5cm / 비단에 수묵

KBS전주총국이 개국 80주년을 맞아 KBS갤러리를 개관했다. KBS가 전북도민에게 문화 · 예술의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사옥 안에 겔러리를 설치하고 사군자전을 기획하였다. KBS가 문화. 예술 서비스를 넓히며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취지이다.

전북은 자타가 공인하듯 한국의 선비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지역으로서 특히 시.서.화를 중심으로한 문인화가 매우 융성했던 곳이다. 이러한 문인화 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던 사군자가 가장 활발하게 그려지고 많이 남아있는 곳은 아마도 전북이 유일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전통을 새롭게 조명하며 나아가 미래의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전북 출신 작가들 뿐만 아니라 조선말기 대표적인 문인화가였던 석파 이하응을 비롯하여 소치 허련, 해강 김규진 그리고 의재 허백련, 죽사 이응로 등의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출품되어 실상 한국의 사군자의 면모를 들여다보게 하였다. 전북 작가로서는 석정 이정직을 비롯하여 송기면, 박호명, 조주승, 이광열, 송성룡 등 근현대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전북의 사군자의 위상과 특징들을 정리하고 조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철량 전북대 명예교수(한국화)는 서화평을 통해 "한국 근현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사군자가 망라돼 사군자의 역사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평했다. 김종진 KBS전주총국장은 "이번 전시회가 전주총국 방송 80주년을 맞이해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서비스" 라면서 "올해 안으로 개국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를 매달 준비하고 있다" 고 말해 앞으로 KBS 겔러리의 폭넓은 활동을 기대하게 하였다. ▲ 〈편집부〉



OPEN SPACE NU-E 개.관.전

2018. 11. 3 -12. 3

완주문화재단 누에아트홀

지난 11월 3일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복합문화공간에 새로운 아트홀이 개관하였다. 이 누에아트홀은 우리 지역의 또 하나의 전시공간으로서 첫 전시회를 열었다. 이 아트홀은 완주 용진읍 완주군청 관내의 오래된 폐잠종잠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꾸며진 것으로서 전시공간 뿐만 아니라 도자기, 목공, 음식 등 다양한 체험공간과 함께 작가들의 레지던시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와함께 작가들의 전시활동의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실질적인 예술활동을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행사로서 완주의 거장전을 열었다. 완주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서예, 한국화, 서양화, 공예, 입체 등에서 60세 이상의 작가 6명을 초대하여 개관전을 가졌는데 서예의 김종범. 한국화의 박인현, 이철량. 서양화의 유휴열, 이상조, 조각의 황순례. 공예의 한봉림이 참여했다. 박성일 군수는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앞으로 좀 더 참신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누구나 예술로 행복한 완주를 꿈꾸며 아트홀을 개관한다면서 동시대의 현대미술의 다양한 스팩트럼과 완주의 미술을 한눈에 조망한 전시라고 밝혔고, 최등원 완주군 의회 의장은 완주에서 작업하며 활동하는 작가들의 다채롭고 실험적인 작품들이 누에아트홀의 예술적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표현한 자리라고 밝혔다.

누에아트홀은 폐산업시설을 창의적 문화예술기반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창작 플렛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앞으로 누에아트홀의 활동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 〈편집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윤형근 작가와 정재호 작가 전시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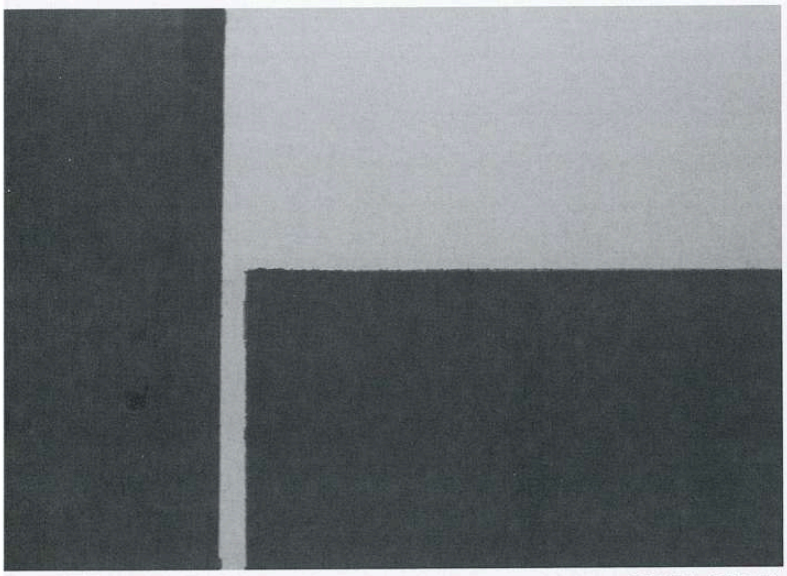
글 **박보미** (충북대 미술학과 3학년)

11월 20일 '현대동양화기법Ⅵ'의 야외수업으로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갔다. 4시 수업이라서 전보다 여유롭게 갔다. 별 기대 없이 간 미술관이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전시가 많이 모여 있어서 무척 좋았다. 전시 중 기억에 남은 작가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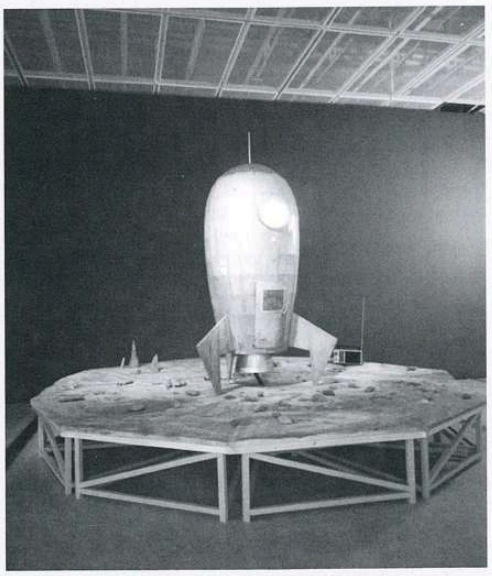
우선 전시회에 가서 제일 처음 본 그림이 윤형근 작가의 작품이었다. 처음에 봤을 때는 크기만 크고 단조로운 그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반 종이나 캔버스로 그린 것이 아니라 마포라는 천에다 그린 것이었으며, 알고 보니 단순히 먹이나 검정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파란색과 암갈색을 섞어서 색을 만들어낸 유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면 볼수록 참 한국적인 맛이 짙은 그림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왜 이토록 단순한 그림인데 어떠한 부분에서 한국적임을 느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의 살아온 이력을 보니 참으로 혼돈스러운 시대를 겪은 인물이었는데, 세 번의 억울한 복역을 통해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인물의 배경을 알게 되니 왜 그림이 이토록 한국적인 정서를 가득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한을 그린 작가이었기 때문이다. 한은 우리나라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정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이 되었지 않았나싶다. 또 색채적으로도 참 단순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이 들었는데 단순히 블랙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다가온 것 같다. 색도 아무색이나 섞지 않고 하늘의 색과 땅의 색을 섞음으로써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느낌의 그림으로 그려진 것 같다. 하늘과 땅이라는 키워드와 이 감각적인 색감의 느낌이 곧 수수하고 무심한 우리의 옛 고유 정서를 표현을 한 것 같다고 느꼈다.





윤형근作 〈청다색〉



정재호作 〈난장이의 공〉, 〈조난〉

여러 작가들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길목 밑층에 거대한 작품을 내려다보았다. 우선 한눈에도 거대한 작업크기에 압도당해 밑으로 흘린 듯이 내려갔다. 곧 벽면을 가득 메울 정도의 커다란 작품을 마주했다. 크기가 너무 커서 사진을 담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 정교하게 그린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다. 알고 보니 올해의 작가 중 하나인 정재호 작가의 작품이었으며, 이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이며, 한지 위에 아크릴로 그린 작품이라고 했다. 재료가 한지라는 건 전시 볼 때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라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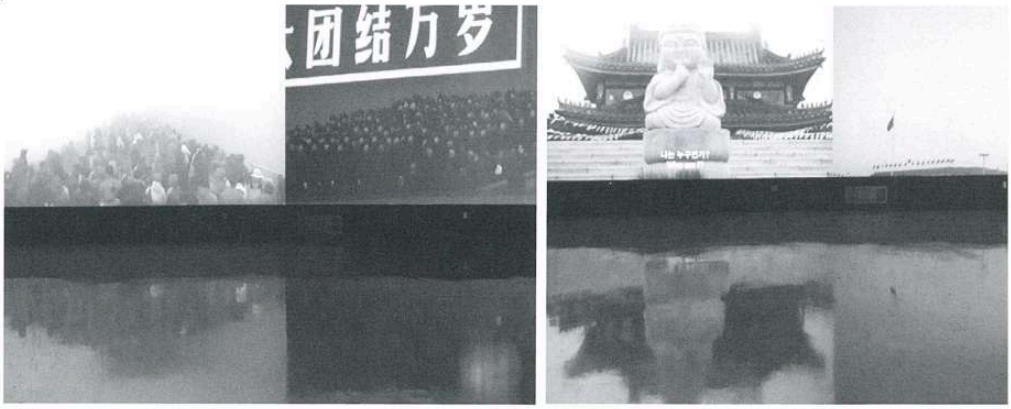
작품들은 개발도상국이었던 옛 시절 옛 도시의 풍경을 나타낸 그림이며, 우주선은 그 시절 불가능했던 꿈인 우주여행이라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당시 소시민들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한다. 생각해보면 나도 초등학교 때 우주여행을 주제로 한 미술대회를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 우리는 우주여행이라는 데 참 많은 환상과 기대감을 품고 살아왔던 것 같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이지만 작가는 가난한 소시민들에게 우주여행이라는 불가능한 현실을 꿈꾸게 했던 당시의 사회상과 너무 빠르게 짓고 만들고 부수는 우리의 모습에 염려를 표하고 있다. 작가의 작품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빠른 발전이 우리에게 무조건 좋을 것인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 두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지금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그려야할까. 앞으로 내 작품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등의 많은 것들을 말이다.

내가 인상에 깊은 작가 두 명이 동양화 작가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두 작가 모두 시대에 반응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작가는, 혼돈스러운 시대를 겪은 인물이고, 다른 한 작가는 소시민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게 한 시대의 이면을 노래한 작가이다. 두 작가는 본인의 작품들을 통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앞으로 내 작품도 지금 현 시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여러 전시회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가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살아 있다 (still alive) 전시를 보고...

글 조성익 (충북대 미술학과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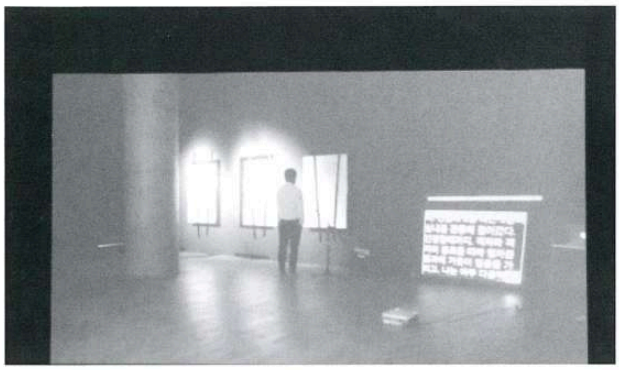
안유리 '불온한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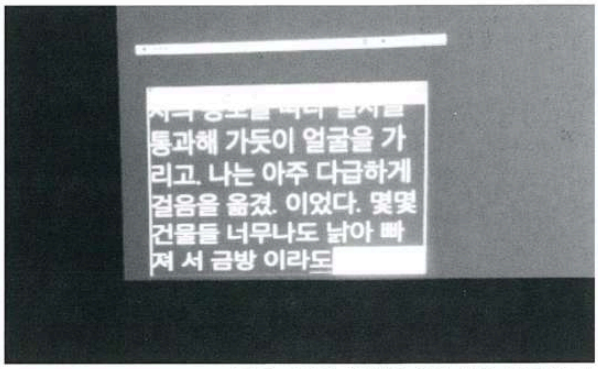
10월 18일 청주시립미술관에 다녀왔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2월 10일까지 '아직 살아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 작가들이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사환, 김온, 안유리, 이샛별, 이완, 믹스라이스, 이우성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각 작가분들의 개성있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먼저 1층의 영상전시를 보았는데 안유리 작가의 '불온한 별들' 이라는 비디오 프로젝트로 20분가량 되는 영상이다. 작가는 최극 몇 년간 이주에 관련된 작업을 통해 핏줄, 민족, 인식, 국가와 개인은 무엇이며, 상호간에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했다고 한다. 중국 연변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영상으로 '조선족' 을 중심으로 조선족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이였다. 영상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국가와 민족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듯 했다.

두 번째는 김온 작가의 '리딩을 위한 선하 씨 텍스트 '라는 작품이다. 남자와 여자가 각자 다른 지문을 마이크로 읽으며 리딩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이 자신이 들리는 단어들을 생각 없이 그대로 텍스트로 받아 적는다. 읽기, 쓰기, 듣기를 조형적인 언어로 변모시키는 실험적인 작품이었다. 일반적인 그림, 설치물이 아닌 행위를 통해 조형예술을 하는것에 신선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이였다. 다만 낭독자들의 차분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루즈하게 20분이상 진행되어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참아내야 한다.

그 다음은 이완 작가의 ' 우리가 되는 방법 '이라는 작품인데 이번 전시에서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었다. 이완 작가의 작품은 저울 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물병, 냉장고, 전봇대, 공구등 여러 물건을 무작위로





김은 작가의 '리딩을 위한 선하 씨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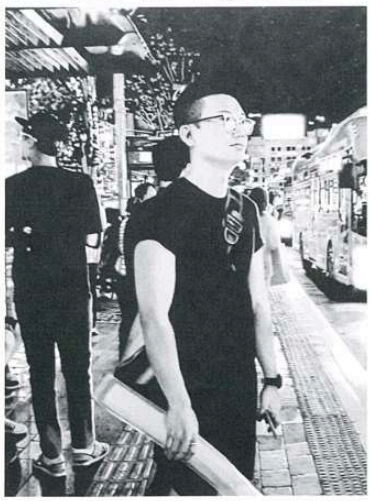
올려놓은 후 각각의 무게를 재어 총합을 낸 후, 그 총합을 전체 개수인 60으로 나누어 5.06kg이라는 절대 평균치를 도출해 그것을 기준으로 각 물건들을 잘라 내거나 덧붙여서 모든 저울이 5.06kg이 되도록 만든 오브제들이다. 솔직히 설명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번째는 이샛별 작가의 작품이다. 이샛별 작가는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사건의 중첩시키는 배치를 통해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제사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자연의 기괴한 힘과 뒤틀리고 이상화된 현실의 외상과 은유, 괴물처럼 증식하는 자본주의의 이미지를 담고자 했다고 한다. 작품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독특하고 묘한 분위기가 나면서 시각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펜과 붓의 선 맛이 그야말로 취향 저격이였다. 선의 테크닉이 내가 현재 진행 중인 작품에서 나오길 바랬던 그런 선들이였다. 일러스트 같지만 회화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이였다.

김사환 작가는 인간사의 조직체계에서 발견된 권력의 허구를 다채로운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데 그는 '사회' 라는 조직체계에서 만들어진 권력을 황제, 노인, 해골 등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그의 작업들은 세상 속의 억업, 불안, 위력에 대한 수많은 트라우마를 풀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믹스라이스는 도시 안에 버려진 공터를 숲으로 만드는 식물, 몇십 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의 예측하지 못했던 풍경, 옥상 위의 이국적인 밭, 천년의 나무, 나무와 숲을 지키는 사람들, 수몰된 풍경 등의 식물 프로젝트를, 이우성 작가는 소소한 주변의 사건이나 경험을 소재로 일상 세계를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선보였다.

그 밖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의 전시 등 여러 곳에서 무엇인가 약간의 깨달음을 얻었던 좋은 전시들을 많이 관람하였다. 최근 가장 큰 고민이던 '왜 그림에 꼭 이유가 필요한가? 왜 작가들은 항상 어려운 단어들을 나열해 이해하기 힘든 설명만 해댈까.' '그냥 좋은 그림, 잘 그린 그림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에 조금은 답변이 되었던 전시였던 것 같다. 작품에 자신의 경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담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또는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



단순히 예쁘고 멋있게 그린 그림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앞으로 해나갈 작업에는 나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멋진 그림을 그릴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 나를 증명하는 그림 한점

서양화가 서수인 개인전 'INVISIBLE'

현대인들의 정체성 고민 던져

2018. 12. 10 ~ 19 / Gallery 누벨 백

글 이병재 기자 / kanadasa@naver.com

서양화가 서수인의 두 번째 개인전 'INVISIBLE' 이 10일부터 19일까지 전주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린다. '인비저블(INVISIBLE)' 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뜻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자신을 증명하는 무엇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현대인의 불안이나 고민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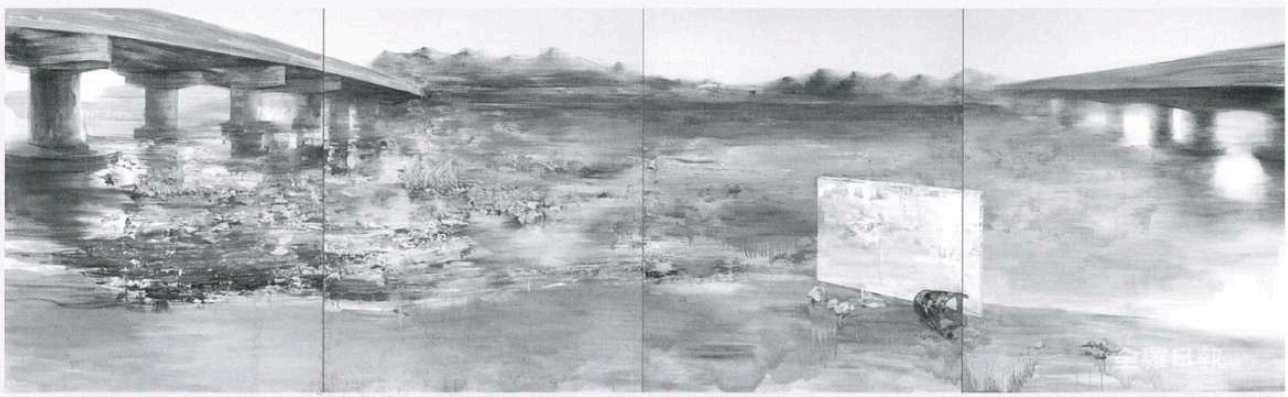
"눈에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간성이 가득 찬 공간 안에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 은 어떻게 존재되어지고 있는지?"

작가는 이런 끊임없는 질문은 작업 안에서 비움과 채움, 발견으로 나타나며 시간적 공간 그 안에 누군가가 사용했을 물건이나 흔적은 어떤 존재가 있었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고 감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달라지는 사유는 당신에게 있어 어떤 의미를 줄 수있는지 그림을 통해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영남대 디자인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고 현재 전북대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과에 재학 중이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서수인, 불완전함의 경계-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 162.2x521.2cm / Oil on canvas

김영란의 여덟번째 이야기 품다

보통 사람들은 화려함에 주목을 하지만
작가는 내면 즉, 씨방을 바라보고
보여지지 않는 어쩌면 사람들이 외면 하는
그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다 한다.

2018. 10. 29-11. 10
gallery 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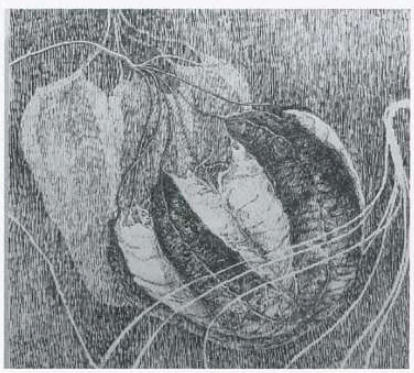
글 김상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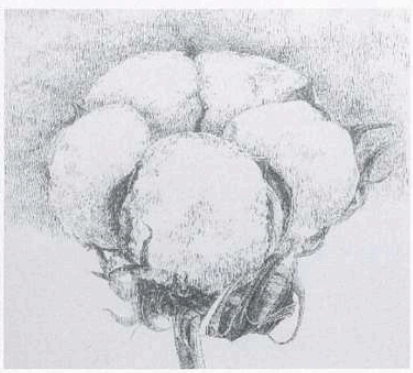


23x23.5cm(x18) 가변설치 Pen on paper 2018

작가는 생을 다한 식물의 텅빈 몸을 그린다. 활기 너미는 봄-여름-가을...을 보내고, 11-12월 쯤의 풍경을.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대한 이야기다. 씨를 품고 있어서다.

생의 시작점은 씨앗이 아닌 씨앗을 품고 있는 씨방이라고 말하는 전시다. 인간의 시작점은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의미도 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딸이었으며 어머니이기도 한 50대 후반 작가 자신의 이야기다. 지금껏 꽤 여러번 김영란 작가의 전시를 봐왔으나 내 눈엔 그냥 좋은-잘 그린 그림이었을 뿐이다. 그러다 오늘 이 그림들이 쏘옥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지금껏 봐온 작가의 그림은 모두 그 시점에서의 작가 자신이었음을 알게 됐다. 내가 만약 50대 후반의 여성 이었 다면 하루종일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중견작가의 탄탄한 시각적 역량 주목 · · ·

10인의 광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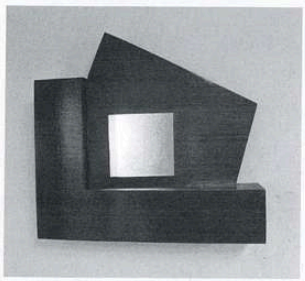
순국열사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이육사의 광야를 시작으로 준비한 기획전시 '10인의 광야전' 이 17일부터 23일까지 문화공간 기린미술관에서 열렸다.

문화공간 **기린미술관**

글 **박은** 전북중앙신문 기자



하울, 비밀의 꿈
40.9x27.3cm / 캔버스에 유채, 2017



김경애, 욕망의 시냅스
46x44x11.5cm / 2D Printing (Drawing), Wood, LED,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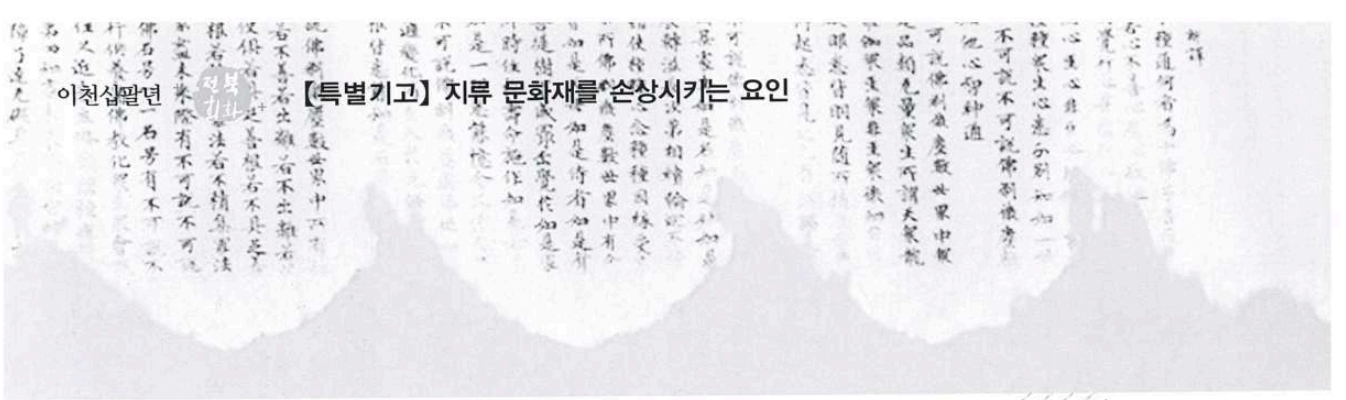
현 상황을 초극하여 미래의 웅대하고 힘 있는 저마다의 '광야' 의 세계를 열어가는 독자적인 형식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탄탄한 시각적 역량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각 지역의 중견작가 10명이 참여한다. 전북 지역 권갑칠 작가는 수묵담채 기법으로 자연 속의 산을 주 소재로 작업한다. 그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한 사람으로, 또 작가로서 느껴지는 깊은 사유의 세계를 힘찬 붓 터치로 전한다.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금경보 작가가 선보이는 '엑스레이' 는 보이지 않는 인체를 뚫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체를 작품에 담아낸다. 단순하고 재미있게 변환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로 재창조되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꿈꾸고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울부짖음을 패러디 했다. 비가시적, 비 촉각적인 인간의 욕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김경애 작가는 충청 지역 중견 작가다. 욕망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떠돌아다니며 뇌신경세포의 시냅스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끝없이 진화와 퇴보를 반복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화폭에 펼쳐놓는다. 전북의 노영선 작가의 작품 '2018 한글이야기' 는 이육사의 광야에서 가져온 한글의 자모음을 자유로운 변형과 응용으로 재배치했다.

새로운 문자추상 작품으로서 또 다른 '광야' 를 노래한다. 호랑이의 몸체의 보물섬은 호접몽에서 꿈꾸는 인간의 이상으로, 페르소나와 민화의 아이콘인 호랑이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는 전북의 송현실 작가는 냉철하고 예리하게 사회를 지적하는 것은 물론 현대인의 삶을 위로하며 새로운 조형언어를 보여준다. 울산 오나경 작가의 작품 '광야' 는 심연 속 라캉의 세계가 끊임없이 분출하는 욕망을 표현한다. 묘사와 물성의 연구를 넘나들고, 미완과 완성을 고민해 드로잉과 페인팅으로 현실에 펼쳐진 새로운 광야를 부르는 끝없는 시니피앙을 선사하다. 하늘의 구름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내듯, 사람들이 제주의 돌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고, 장은철 작가는 먹물을 듬뿍 찍어 붓끝에 또 다른 제주의 돌과 이야기를 그린다. 영혼과 바람 소리 가득한 바위산을 통해 안락과 휴식을 전달한다.

'Peace Coexistence-Good Day' (평화공존-좋은날)는 우리의 분단현실을 "평화공존" 으로 극복하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미래지향적 신념을 그린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미선 작가는 밝은 미래를 확신하며 소망을 표현했다. 서울에서 온 최용신 작가의 '철근결속선' 은 사람의 형상으로 연결된 형태들이다. 이는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 개인의 존재가치는 미약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미시적 요소가 거대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는 관점에서 관계와 형태를 시각화 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에서 활동하는 하울 작가는 추위를 안고 망망대해를 헤엄쳐 건너 작업해야 하는 작가들의 눈물과 아픔, 고통을 담아냈다. 끝없이 채찍하며 다그치는 현대의 시린 현실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출처 : 전북중앙신문(http://www.jjn.co.kr)



지류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요인

문화재란 조상들이 남긴 유산으로 역사적, 문화적,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문화재는 석조, 금속, 벽화, 직물, 목재, 지류 등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환경 인자들의 영향으로 훼손되고 있다.

글 **이채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전문대학원)

많은 회화 문화재는 지류문화재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글을 통해 보편적으로 지류 문화재가 훼손되는 양상과 이에 대한 보존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류문화재는 전적, 회화(불화 등), 고문서 등으로 분류되며, 지류 문화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재질은 종이이다. 유기질 재료는 특성상 환경에 매우 민감하여 보존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손상이 발생한다. 지류의 손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환경요인(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인위적 등)과 제지 기술적(첨가약품) 요인이 있다.

첫째, 물리적인 손상원인은 온습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수축과 팽창으로 지류를 이루고 있는 조직이 점차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온도와 습도가 높을 경우, 유물 내 공극의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성분을 부분적으로 용출시킨다. 습도가 낮을 경우, 종이의 함수율이 저하되고 유연성을 잃어 내절강도 등을 떨어트린다. 이 외 종이를 말게 되면 구김에 의한 주름이 생기고, 특정 부분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져 찢어짐, 꺾임 등이 발생한다.

둘째, 화학적인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산, 빛, 공기오염인자 등에 의해 지류 구성물질인 셀룰로오스나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이 변화 및 분해하여 손상을 입게 된다. 산에 의해 구성성분 중 하나인 셀룰로오스는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오랜 시간동안 변질 분해된다. 이것은 보통 셀룰로오스 분자가 산화되어 분해물로 알데히드기(-CHO), 카르보닐기(-CO)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은 습한 환경에서는 산가수분해의 요인으로써 작용하기도 한다. 이 외 빛 또한 화학적 손상을 일으키는데 빛의 파장 중 자외선은 리그닌과 광화학 반응하여 탈색과 변색을 일으키고, 셀룰로오스 결합을 파괴하여 부스러지게 만든다. 공기오염인자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황화수소, 암모니아, 염분, 매연 및 분진 등이 있고 주로 산화, 환원 반응, 산성, 알칼리성 물질에 의해 변질된다.



변색을 일으키고, 셀룰로오스 결합을 파괴하여 부스러지게 만든다. 공기오염인자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오존, 황화수소, 암모니아, 염분, 매연 및 분진 등이 있고 주로 산화, 환원 반응, 산성, 알칼리성 물질에 의해 변질된다.

셋째,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손상은 대부분 1차적으로 고습환경 유지로 2차적인 생물열화(곰팡이, 충해 등에 의한 손상)가 발생하면서 손상이 일어난다. 곰팡이는 보존환경의 온도, 습도, 광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빛이 없고 환기가 되지 않으면 고습한 환경에 놓인 곰팡이는 급속도로 번식하게 된다. 또한 곰팡이가 번식하는 과정에서 가수분해 효소를 분비하고 이는 지류의 지질을 분해하여 손상을 입힌다. 그리고 이는 표면에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곤충을 유입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해곤충은 식물 인피섬유를 구성하는 셀룰롤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를 먹이로 하여 천공하는 습성을 통해 유물을 가해한다. 이런 해충으로는 권연벌레, 책좀, 흰개미 등이 있다. 권연벌레는 지류유물 내부를 관통하여 식흔을 남기고 책좀은 서적의 풀에 부착된 부분을 표면적으로 가해한다. 흰개미는 지류 내 셀룰로오스를 가해하며 터널 길과 같은 흔적을 남긴다.

이렇듯 지류문화재는 각각의 환경인자들이 일으키는 손상은 단일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1차적 요인으로 인해 2차적, 3차적 요인 등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고습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번식하고 해충들이 유입되게 된다. 이에 지류 문화재는 해충들의 기작을 통한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곰팡이에 의한 화학적 손상 그리고 복합적인 생물학적 손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류 문화재를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습도 환경인자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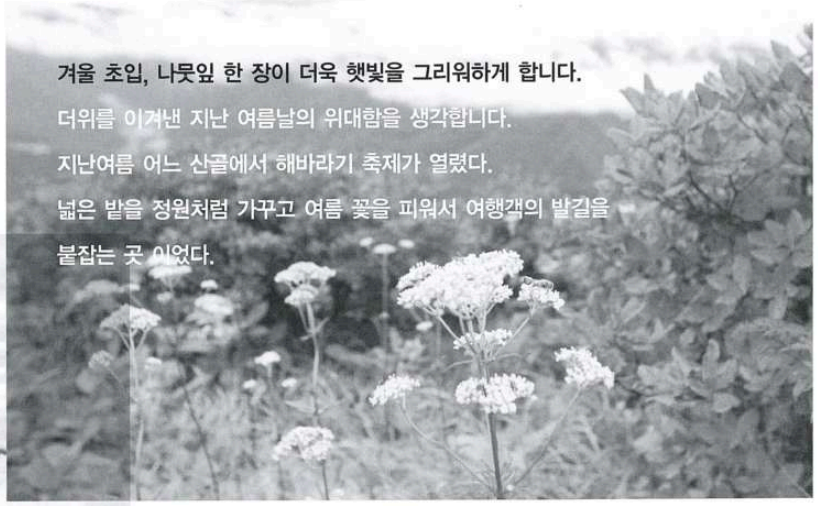
지류 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유물의 제작 기법 및 재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유물의 형태, 손상 정도, 바탕 재질 등에 대한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존 대책을 수립하여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번 손상된 지류문화재는 다시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손상되기 이전에 예방 보존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더 이상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훗날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고요함과 여유를 찾는 생활

글 이승훈 (전북회화회 회원)





겨울 초입, 나뭇잎 한 장이 더욱 햇빛을 그리워하게 합니다.
더위를 이겨낸 지난 여름날의 위대함을 생각합니다.
지난여름 어느 산골에서 해바라기 축제가 열렸다.
넓은 밭을 정원처럼 가꾸고 여름 꽃을 피워서 여행객의 발길을 붙잡는 곳 이었다.



지역 특산품으로 먹거리와 기념품을 팔았다. 한 마을이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인 만큼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여유롭게 돌아볼 수 있으면 그만한 축제장은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였다. 삼수령 근처 구와우 마을 축제장 가는 길가엔 진 노란색 루드베키아와 개망초 꽃, 유혹적인 향기를 지닌 족두리 꽃, 가을 전령사인 코스모스도 이미 피었다. 길 건너엔 하얀 다리를 가진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멀리 산등성이엔 풍력발전기가 보였다. 그곳이 매봉산 바람의 언덕이다. 산언덕이 배추밭인데 구름과 안개가 변화하면서 신비함을 준다. 해발 1,303m 산꼭대기와 1,250m에 배추밭 40만평 넓은 고랭지 농사지이다. 관광객은 농사짓는 분을 생각하면 고생이 아니다. 물 조절 못하면 말라버리거나 배추무름병이 생기고 판매 시기도 잘 맞추어야 한다. 겨울엔 집 앞만 눈 치우는데 3시간, 영하 20도에 물을 구하기도 힘든 데라고 한다. 가족과 함께한 여행객이 많아도 서로들 불편함을 견디면서 주차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담소도 나누는 것은 멋진 풍경 중 하나이다.

태백산을 오르는 산길에서도 여름 꽃을 만났다. 동자 꽃을 중심으로 연분홍 작은 얼굴의 이질풀, 엉겅퀴 비슷한 산비장이, 나비를 모으는 나리꽃, 풍경이 매달린 잔대 꽃, 노랑 고명을 뿌린 마타리 꽃 등을 만날 수 있었다. 등산을 위주로 했었다면 작은 꽃들의 존재도 몰랐을 것이다. 넉넉한 시간과 관찰 할 수 있는 마음이 움직였기에 가능하였다. 야생화도 수목원이나 화원 하는 곳에 가면 만날 수 있겠지만 저절로 피고 지는 꽃은 바람과 햇빛이





▲ 지베르니 연못

적당한 기온을 내주어서 좋은 환경을 이룬다.

봉숭아와 눈 꽃 같은 설악초, 고적한 맨드라미 몇 개가 울타리 옆에 피어 있으니 더욱 정겹고 한가로워 보인다.

바삐 돌아다니다가 길모퉁이에서 만나는 과꽃을 보거나 백일홍 꽃을 보면 어릴 적 생각이 절로 난다. 집안에서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음식을 장만하고 가을걷이를 하는 부모님 생각이 나고 함께 어울렸던 형제들도 생각이 난다. 그래서 기억이 아니고 추억인 것이다. 언젠가 모네가 살았던 지베르니에 간적이 있다. 여름이었는데 꽃도 다양하였으며 인파가 굉장했다. 파리에서 노르망디 쪽 80km 정도 위치하고 농장을 구입하여 정원으로 가꾼 곳이다. 화가는 자기 집에 강물을 끌어 들여서 인공 연못을 만들고 물의 정원과 꽃의 정원을 가꾸었다. 1883년 모네는 푸아시를 떠나 베르농 농가를 찾아 살았으며 1890년 지베르니에 농장을 구입하고 1893년에는 정원 앞 철도 건편 에프트 강가 토지를 사들이는 동안 43년간 이곳에서 살았다. 버드나무가 휘늘어지게 심고 대나무와 등나무를 심었으며 수련을 심고 동양식 무지개다리를 놓고 배를 띠워 놓았다. 나무와 각종 꽃을 심어서 가꾼 것이다. 그리고 휴식도 하고 그림도 그렸다. 이곳에서 그린 그림이 250여 점이 된다하니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모네는 "나의 정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걸작이다" 라고 했다. 이 모네의 정원은 세계 10대 정원으로 불린다. 나이가 들어서는 백내장이 악화되어 시력을 잃게 되었으며 이 때 그린 그림은 미완성처럼 보인다. 그는 86세까지 장수하였으며 빛과 싸워서 그린 그림이 인상파라는 양식을 남겼다. 이 화가의 정원에서는 머무르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무 많아 번잡하고 여기 저기 사진 찍고 소란스러워 도저히 화단을 돌아다닐 곳이 못되었다. 사실 모네 생전에도 모네는 지베르니에 찾아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찾아오는 시간에 그림을 하나 더 그리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 그래도 후미진 나무 그늘 밑이 조용하고 한적하였다. 여행 작가인 드상티스는 "지베르니는 한입에 몽땅 털어 넣는 장소가 아니라 천천히 홀짝이며 음미하는 곳이어야 한다." 라고 했다.

고요함과 여유를 찾는 여행이 요즘 경향인 것 같다. 우리 여행이나 생활은 쉼이 있는 조용하고 안정이 있는 곳이 좋겠다. 자연이 살아서 새소리와 물소리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 바람이 불어오면 좋고 낙엽 길을 걷고, 눈이 적당히 내려서 눈을 밟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때마침 친구가 찾아와 음악을 들려주고, 음식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좋은 책을 권해도 좋겠다. 작은 마을에 살면서 새로 집을 지을 요 없이 있는 그대로 가꾸면서 자연과 함께 조우하는 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고요하게 선물해주는 것이 아닐까?

딸과 함께 2박3일 일본여행



글 이진숙 (신아문예대학수필창작수요반)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점 후회도 없이 사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수없이 많은 후회를 하고 또 하고 살아 왔는데, 그 중 가장 큰 후회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절대 돌이킬 수조차 없는 후회이다. 물론 나의 불효로 인한 후회이니 누구를 탓할까!
나의 이런 후회를 자식들에겐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지난 5월에 딸에게 카카오 톡이 왔다. 7월에 일본온천여행을 가자면서,
앞뒤 생각 할 것 없이 무조건 좋다고 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되었다.
그런데 1994년 이래 최대의 폭염이 하루하루 최고 온도를 갱신하면서 우리나라 전역이 펄펄 끓는 불가마로 변해 가고 있었다.
'이렇게 더운 날 온천여행이라니' 속으로 연신 중얼 거렸다. 그러다가도 '아니지, 나도 두고두고 후회하는데 내 딸에게까지 그런 후회의 짐을 넘겨주면 안 되지' 라며 애써 마음을 달랬다. 한편으로 딸과 함께 하는 여행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하루하루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컸다.

드디어 그날이 돌아 왔다. 남편의 소심한 성격으로 여행 가방을 며칠 전부터 싸고 또 싸고 챙기고 또 챙겨 가지고 하루 먼저 딸네 집으로 올라갔다.

올 봄 아이들과 남편을 먼저 핀란드로 떠나보내고 커다란 집에 혼자 남아 있는 딸이 안쓰럽기도 하고 자주 올라와 보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하루 밤이라고 같이 지내고 싶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 마쓰야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잠깐 앉았던 것 같은데 벌써 도착했단 기내 방송이 나왔다. 매사에 정확하기로 소문난 일본 입국 심사를 절실하게 실감하며 내 생각에 한 시간은 족히 넘겨 공항을 나온 것 같았다.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버스를 타러 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숨이 턱 하고 막힐 것 같은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핥고 지나갔다.

숙소인 '오쿠도고 이치유 노 모리 호텔' 에 도착하여 체크인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 세 개가 사이좋게 놓여 있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깊은 계곡이 펼쳐져있다. 두 팔 벌려 딸을 안으며 '지은아 고맙다' 라는 말을 했다. 내가 했던 후회를 더 이상 물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이것이야 말로 요즈음 흔히 말하는 * '소확행'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텔 주변을 산책한 후에 온천으로 향했다. 들어가자마자 강한 유황 냄새가 온 몸으로 전해졌다. 내탕과 노천탕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노천탕 바로 앞에 깊고 울창한 숲과 계곡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 몸으로 즐겼다. 뜨거운 여름날에 더 뜨거운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있어 좋았다. 온천 욕 후에 호텔에 준비된 저녁은 그야말로 만찬이 따로 없었다. 특히 '다랑어 해체 쇼' 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가끔 TV에서 보면서 나도 저런 회를 먹어 봤으면 하고 부러워했었는데, 눈앞에서 방금 전까지 살아 있던 생선이 한 점의 맛있는 회로 변신하여 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혀와 머리가 동시에 반응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엄지손가락이 올라가고 입은 살짝 옆으로 벌어지며 얼굴 가득 웃음이 퍼졌다. '술안주는 생선회가 최고' 라고 하는 그는 회접시를 보며 단숨에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곤 우리 식탁에는 맥주 컵과 회 접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만 갔다. 역시 여행하면 그 여행지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아마도 그날 저녁에 먹은 음식들이 오래오래 내 기억에 남아 나를 행복하게 하리라 생각한다.

다음 날 딸을 앞세워 드디어 관광에 나섰다. 일본 만화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란 영화의 무대가 되었던 3000년 이란 긴 역사를 지닌 '도고온천' , 일본소설가 '나쓰메 소세키' 가 쓴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을 딴 봇짱 시계, 봇짱 열차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또 바로 곁에 있는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 지나다니는 사람의 발의 피로를 풀어 주는 '노천 족욕 탕 '을 구경했다. 일본 역시 폭염으로 온 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고 있었다. 그렇게 혹독한 폭염 속을 뚫고 걸어서 찾아 간 곳은 ' 이시태지 절(석수 사)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리오몬 문' 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본 절은 우리나라 절과는 참 다른 점이 많았다. 특히 '원전반대 운동' 에 앞장서는 진보적 사찰로 유명한 절이다. 불교 신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절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본 '마쓰야마 성' ,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먹었던 '냉 소바' , 하루 종일 발품도 팔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면서 모처럼 딸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아빠와 딸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오붓하고 단출한 관광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공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힌 다음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있으니 양쪽에서 달리던 차들이 모두 멈춘다. 보행자 우선을 철저히 지키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한 온천탕에 들어가는 계단에서 앞서 가던 노인이 털썩 주저앉더니 바로 뒤를 보며 '쓰미마셍' 하며 연신 고개를 숙인다. 일본인들의 남을 위한 배려가 참 좋아 보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정치인들은 과거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비록 2박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나에게는 참 긴 시간을 딸과 함께 보낸 행복한 여행이었다.

나의 친정어머니는 먹는 것과 노는 것들을 참 좋아하셨다. 어머니가 한참 놀러 다니실 나이에 나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느라 어머니와 단 둘이 잠을 자며 여행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다 크고 나도 퇴직을 한 후에는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런 것들은 나의 불효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런 불효를 한 나에게 어머니는 살아생전 당신에게 나 같은 딸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늘 이야기 하셨다. 정말 낯 부끄러운 일이다.

온천에서 딸이 내 등에 비누칠을 해 주는 손길에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던지, 곁에 같이 목욕할 수 있는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인천공항에 내렸다. 내 나라에 오니 입국 수속도 일사천리, 바로 가방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다. 이제 딸과 헤어질 시간, 녀석은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집으로, 우리는 장기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찾아 전주로 출발했다. 오는 내내 딸과 함께 카카오 톡으로 즐거움을 나누었고, 멀리 있는 아들도 시간에 맞춰 카카오 톡으로 인사를 했다.

사람 사는 즐거움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2018. 7. 27.)

*소확행 :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는 뜻으로 사용한 낱말이다.

읽을 만한 책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최순우 지음 / 학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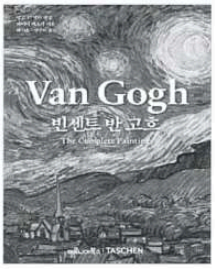
우리나라 대표 공예품과 청자 · 백자 · 분청사기 등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각종 장신구와 범종, 토기와 같은 다양한 공예품들을 통해 선조들의 세련된 솜씨와 예술 감각을 엿보고 소박하면 소박한대로, 근엄하면 근엄한 대로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뽐내는 우리 공예와 도자기들에 담긴 이름 없는 도공들의 빛나는 예술혼까지도 만나볼 수 있다.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알고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최순우 선생의 고전 평론과 에세이를 담은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미술과 문화를 제대로 알고 생각해볼 수 있다. 풍부한 사진을 담아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하고 관련 정보를 수록해 내용을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만 알면 옛 그림이 재밌다

<윤철규 지음 | 이다미디어>

서양 그림에 익숙한 우리에게 우리 옛 그림은 여전히 낯설다! 우리 옛 그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시회와 강연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덩달아 방송매체에서도 옛 그림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소수 전문가들만 즐기고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옛 그림에 일반인들의 눈길이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즉 우리 것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옛 그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책은 옛 그림에 대해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매체에 소개하는 동안 저자가 옛 그림 감상에 꼭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전문가의 감상평을 외우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는 첫걸음임을 알려준다.





빈센트 반 고흐

<라이너 메츠거 , 잉고 F. 발터 (편집) 지음 | 하지은, 장주미 옮김 | 마로니에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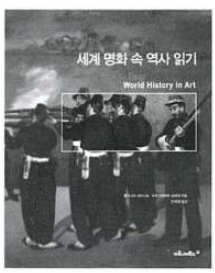
축복이라기엔 너무나 가혹한 재능– 표현주의 거장의 천재성과 불안을 그리다.
어느 시대의 유명인보다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예술가. 죽은 지 백 년도 넘은 화가가 어떻게 이토록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일까. 반 고흐의 그림이 대중적인 것은 그의 작품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모던' 함 때문이다. 그의 그림은 19세기의 미술계, 사상계, 과학계 및 사회 분위기 등 근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근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온 현대 문화이기에, 현대의 토대가 오롯이 담긴 반 고흐의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방구석 미술관 가볍고 편하게 시작하는 유쾌한 교양 미술

<조원재 지음 | 블랙피쉬>

예술가의 작품 탄생에 담긴 기막힌 반전부터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담은 미술 입덕 교양서 『방구석 미술관』. 미술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모토 아래 2016년부터 팟캐스트 '방구석 미술관' 을 기획 · 진행하고 있는 조원재가 높게만 느껴지는 미술 문지방을 가볍게 넘을 수 있도록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예술가를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프리다 칼로, 에곤 실레, 파블로 피카소, 클로드 모네, 마르셀 뒤샹까지 미술계 거장들에 대해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 집요하게 파고들며 미술 교양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차게 전한다.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필치와 전매특허 스토리텔링을 고스란히 담아 더없이 친근하고 인간적인 미술계 거장들의 반전 매력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한다.





세계 명화 속 역사 읽기

<플라비우 페브라로 , 부르크하르트 슈베제 지음 | 안혜영 옮김 | 마로니에북스>

세계의 역사를 그림 속에서 살핀다!
『세계 명화 속 역사 읽기』는 함무라비 법전 선포부터 9.11테러까지 예술가들이 그림으로 해석한 역사적 사건을 담아낸 책이다. 중대한 사건에 대해 회화, 드로잉, 조각, 사진 등을 주문했던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어도어 루스벨트에 이르기까지, 고대 이집트의 익명의 조각가부터 루벤스, 엘 그레코, 터너, 고야, 호머, 마네, 워홀, 리히터에 이르는 예술가들은 중요한 순간들을 영원히 역사적 기억으로 남을 작품으로 남겼다. 또한 페르시아, 로마, 중국, 미국의 건국 과정과, 전쟁, 대항해, 산업혁명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적 사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작품을 통해 특별한 세계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송태정 [redacted]
송화정 [redacted]
안순금 [redacted]
유예빈 [redacted]
이정자 [redacted]
이승훈 [redacted]
이우정 [redacted]
이진숙 [redacted]
이철량 [redacted]
이환배 [redacted]
정미현 [redacted]

전북회화

2018년 통권 제25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박지혜

편집위원 | 박지혜, 송태정, 송화정, 이철량, 유예빈, 정미현

전북회화 2018년 통권 25호

발행일 | 2018. 12. 10

기획 [redacted]

편.집.후.기

함박눈이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 놓은 설경
유리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현대의 허울 좋은 고독의 광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사람은 사람의 자연을 가지고 자기를 잃지 않은 인간의 향수를
지닌 자연의 언어와 표정을 상실하지 않은 회화 회 회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삶의 목적이나 삶의 빛깔을 아주 정확하게
스스로 만들어 가며 쓸쓸한 현대를 소화해 내며
누구보다도 우수하게 일을 처리해 내고 있는 회원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감을 맛보도록
옥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회화회 회원들은 더욱 좋은 작품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삶속에서 풍성한 겨울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계획

- 1월 동계 MT
- 5월 회화회 세미나
- 하계 MT
- 11월 정기전
- 12월 총회

전북회화

2018년 통권 제25호 전북회화회

발행·편집인 | 박지예
편집위원 | 박지예, 송태정, 송화정, 이철량, 유예빈, 정미현
전북회화 2018년 통권 25호
발행일 | 2018. 12. 10
대표연락처 010-2658-7822
기획, 제작 | 프린팅헤븐 T. 287-9796, 010-7748-1236

2018

전북 회화

http://cafe.daum.net/artjb

전북 회화를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다 정확히 알고 보자는
한국화가들의 모임입니다.